metro

메트로 2014년 1월 13일 월요일 제2892호 www.metroseoul.co.kr

"무료신문 원래 내 창업 아이템"

메트로신문 신년 인터뷰

박 원 순 서울시장

출근길 시민 희망 메신저 잘될 거라는 믿음 여전해 꼼꼼한 시정 원천은 메모 가계부 적듯 계속 써야죠

박원순 서울시장이 10일 오전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메트로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아침을 여는 메트로신문은 즐거움을 주는 저의 동반자입니다. 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박원순 서울시장이 조금 늦었지만 메트로신문 독자에게 새해 인사를 건넸다. 세계 여러 나라를 돌아다닌 것으로 유명한 그는 15년전쯤 스웨덴에서 메트로신문을 접한 일화를 공개했다.

"여행을 다니다 우연히 무료 신문을 보게 됐죠. 신문을 집어들자마자 '기가막힌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국으로 돌아가 만들어봐야겠다고 결심했는데 얼마 안 가 서울에서도 메트로신문의 창간 소식이 들리더군요. 아쉽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고. 잘될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최근 경제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청년 실업, 비정규직 문제 등 시민을 우울하게 하는 것이 많은데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메트로신문도 시민과 소통하고, 기쁨을 주고, 가까운 친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세요."

◆ 희망노트 1800권… 메모광 원순씨

박 시장과의 첫 만남은 시장실에서 이뤄졌다. 잘 정리되고 깨끗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벽면은 온통 시민들의 민원이 담긴 쪽지들로 가득했고, 책상은 결재서류 등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었다. '일하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물씬 풍겼다. 메모광으로 유명한 박 시장은 항상 사람들과 대화하고, 이를 기록으로 남긴다. '희망노트'로 불리는 그의 수첩은 벌써 1800권을 넘었다.

"아이디어라고 할 게는 없지만 제 생각의 기본은 다 이 수첩에서 나와요. 시 공무원과 보좌관들에게 지시한 사항도 다 적어놓죠. 앞으로도 메모하는 습관은 버리지 않을 겁니다."

2년여 동안 서울시의 행정을 담당하면서 수많은 일을 해냈다. 심야 '올빼미 버스' 운행, 시민청 공간을 활용한 문화 생활 확충, 임대주택 8만 호 건설, 서울 둘레길 조성, 안심귀가서비스 등 일일이 나열하기도 힘들다. 2년여 만에 3조원이 넘는 서울시의 빚을 줄인 것은 놀랍다. 계획대로라면 올해 연말까지 7조원가량 탕감할 수 있을 것으로 그는 내다봤다.

박원순 시장이 직접 붓펜으로 정성스럽게 글씨를 써가며 메트로신문 독자에게 새해 인사를 전했다.

"서울시 빚 7조원 탕감을 공약으로 내걸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웃었죠. 허풍이 심하다고요. 민주당에서도 믿지 않더군요. 하지만 방만하게 운영되는 시정을 들여다보는 순간 길이 보였어요. 주부가 가계부를 적듯 제도 쓸데없이 돈이 새나가는 곳을 막았죠."

◆ "앞으로 할 일 더 많아… 시민 선택 믿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 시장은 이미 재도전 의사를 내비쳤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신년하례회 때 '서울 탈환'을 모토로 서울시장에 사활을 걸고 있다. 박 시장과 대적할 인물난에 고심하고 있는 새누리당은 출마 의지를 거듭 밝힌 정몽준 최고의원의 출마를 종용하고… 김영세 주중대사 차출설까지 나오고 있다. 민주당에 적을 두고 있는 그는 신당 창당을 가속화하고 있는 안철수 의원 측과의 연대도 필요하다.

"정말 서울시장은 원한다면 자리보다 먼저 서울시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제시하는 게 순서죠. 2030 플랜, 도시철도 기본계획, 관광산업, 서울 외곽 둘레길 완성, 마포 석유비축기지 문화명소 탈바꿈 등 해야 할 일이 참 많아요. 이권 언제도 상식과 합리가 통하기 때문에 잘될 것으로 봅니다."

박 시장은 올해 시정 운영의 기본 틀을 현안 해결을 통한 갈등 해소와 민생 확충, 미래 초석 쌓기 등 3가지로 정했다. 갈등 해소를 위해 그가 강조하는 점은 소통이다. 뉴타운·재개발과 같은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사업성을 철저하게 따지고 주민과 진지한 대화를 통해 해답을 찾을 방침이다. 은평구에 설치된 '청년 일자리 허브' 역시 청년 실업을 해결하기 위한 소통의 장소다. 서울시 고령화 문제는 복지 예산을 늘리고 어르신들이 소통할 수 있는 장소를 많이 늘려갈 계획이다.

"뉴타운 출구전략은 무조건 도시를 허무는 것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도시재생 정책을 추진하자는 겁니다. 많은 분쟁과 갈등을 해결했고, 사업성이 좋은 곳은 빠르게 뉴타운을 진행하는 등 교통정리가 돼가고 있죠. 박근혜 정부가 경제·사회·문화 등을 아우르는 종합적 도시재생을 시작한다고 하니 정부의 많은 지원도 부탁드려요."

/유현준기자 mlam@metroseoul.co.kr

■ 못다 한 이야기

"은평뉴타운 한동네 이웃들 시장 덕분에 집값 올랐대요"

-은평뉴타운으로 이사했는데

은평뉴타운 수물골 7단지에 있는 전용면적 167㎡의 복층 구조 아파트로 전세금은 2억6200만원이다. 요즘 주민들이 떡도 나눠주시고 잘 지낸다. 시장이 와서 치안도 좋아지고 집값도 올랐다며 좋아하시더라.

-아빠와 남편으로서 스스로 점수를 준다면.

스스로 어떻게 점수를 매기겠나. 단지 요즘에는 집에 들어가 가족들과 저녁을 함께하려고 노력한다. 일찍 들어가는 날은 아내가 당황해하는데, 보좌관들은 일찍 들어보내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할 생각이다.

-방황하는 청춘에게 조언 한마디

수많은 아이디어와 정책이 있어도 이를 실천하지 않으면 그냥 자료집으로 남을 뿐이다.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무슨 일이든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청춘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도전하는 청춘이 아름다운 것이다. /유현준기자

3월3일 '16년 만의 의료대란' 재연되나

의협 "대화 진전 없으면 총파업 강행" 정부 "대화하겠지만 불법파업엔 엄정 대처"

총파업 반대 의견도 노환규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12일 오전 의협 총파업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는 동안 뒤에 결정에 반대하는 팻말이 걸려 눈길을 끌고 있다 /연합뉴스

의료계가 지난 주말 출정식을 통해 총파업 강행을 결정하자 정부가 이에 즉각 대응하며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제도 바로 세우기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1일 서울 이촌동 의협회관에서 '의료제도 바로세우기 전국 의사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오는 3월 3일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각 수재별 분과토의를 거친 종합토의를 통해 최종 투쟁 로드맵을 설정했으며 최종적으로 회원 투표를 거쳐 총파업 진행을 결정하기로 했다 다만 이들은 정부의 입장 변화에 따라 총파업을 유보할 수 있다는 여지는 남겼다

노환규 의협 회장은 "잘못된 건강보험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한다 또 의료계의 요구를 협의하기 위한 새로운 협의체를 정부에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입장 변화를 보이면 파업을 유보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의료계의 총파업 강행 통보에 정부는 즉각 대응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례적으로 11일과 12일 이틀간 의료계 총파업에 대한 공식 입장 표명을 통해 불법 파업에 엄정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원격의료와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은 의료 민영화와 거리가 멀다 국민 편의 증진과 일자리 창출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일 뿐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계와의 협의체를 통해 조속히 대화에 나설 것"이라며 대화에 나서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하지만 복지부는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하는 불법 파업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고 국민이 동의하지도 않을 것이다 불법 파업을 강행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해나갈 것이다"고 의료계에 경고했다

한편 여야는 지난 11일 의료계 총파업 사안에 대한 해결 방안에서 이견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총파업은 명분도 없고 불편만 초래한다 명분 없는 파업 계획을 지금이라도 철회하기 바란다"고 의협을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는 진주의료원 폐업 수서발 KTX 민영화 등에 이은 의료 영리화에서도 국민이 납득할 만한 해명을 못 하고 있다 총파업의 원인이 된 의료 영리화 방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예슬기자 heou@metroseoul.co.kr

한국 새 추기경 염수정 대주교

교황 내달 각국 19명 서임

한국 천주교의 새 추기경에 서울대교구장인 염수정(71·사진) 대주교가 임명됐다

한국천주교 주교회의는 12일 염수정 대주교가 새 추기경으로 지명됐다고 밝혔다 추기경 서임식은 다음달 22일 로마 바티칸 교황청에서 열린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추기경을 서임하는 것은 지난해 3월 즉위 이후 처음으로 염 대주교를 비롯해 세계 각국 19명을 서임한다

한국은 김수환 추기경에 이어 2006년 정진석 추기경이 서임되면서 '2인 추기경 시대'를 열었으나 2009년 김 추기경이 선종한 데 이어 지난해 정 추기경마저 은퇴하면서 현재 현역 추기경이 없는 상태였다

염 신임 추기경은 1943년생으로 80세 미만이기 때문에 교황 선출권도 갖는다 1970년 가톨릭신학대를 졸업하고 같은 해 12월 사제가 됐다 이후 서울 불광동 성당과 당산동 성당 보좌 신부로 사제 생활을 시작한 뒤 평화방송 이사장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위원장,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 이사장으로 활동했다 2012년부터 정 추기경 후임으로 서울대교구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다 /이혜영기자 lyl433@

겨울방학 맞아 붐비는 서울도서관 12일 오후 서울도서관이 겨울방학을 맞은 학생 등 책을 읽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옛 시청사를 리모델링한 서울도서관은 일반도서 24만여 권, 전자책 8200여 종 DVD 등 비도서 4300여 종 등 방대한 서적을 보유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505억 늘었다

올해 우리 정부가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총액이 지난해보다 5.8% 증가한 9200억원으로 확정됐다

외교부는 제9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협정(SMA) 협상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분담금 총액은 지난해(8695억원)보다 505억원 증가된 9200억원이다 협정 유효기간은 2018년까지 5년으로 연도별 인상률은 전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CPI)를 적용하되 최대 4%를 넘지 않도록 했다 소비자물가지수를 2~3% 정도로 가정할 경우 2017~2018년에는 방위비 분담금이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한 미 양국은 방위비 분담금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분담금 배정 단계에서부터 사전 조율을 강화키로 하는 등 제도 개선에도 합의했다

우선 방위비 분담금 배정 단계에서부터 양국 간 사전 조율을 실시키로 했다 또 중장기 건설 사업에 대한 협의 체제를 신설하는 등 군사건설 분야의 상시 사전협의 체제도 구축키로 됐다 방위비 예산 편성과 결산 과정에서의 국회 보고도 강화된다

외교부는 "방위비 분담 제도 시행 이래 최초로 방위비 분담금 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제도 개선을 이끌어냈다"고 분석했다 정부 내 절차가 3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회 비준안 제출은 2월 초로 예상된다 /김민준기자

뉴스&뉴스

MB측 "상금세탁 보도 조치 없으면 법적 대응"

● 이명박 전 대통령 비서실은 12일 이 전 대통령이 2011년 아랍에미리트(UAE)로부터 받은 자이드국제환경상 상금 50만 달러를 '자금 세탁'했다는 한 언론 보도에 대해 "전직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납득할 만한 조치가 없을 경우에는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이드국제환경상의 상금은 계좌에 예치돼 있으며 향후 수상 취지에 맞도록 의미 있게 사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감사원, 동양사태 관련 금융당국 특감 곧 착수

● 감사원이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해 이르면 다음주부터 금융 당국의 감독이 적절했는지를 조사하는 특별 감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 관계자는 12일 "금융감독원의 동양그룹 사태에 대한 자체 기본 조사가 26~28일께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이보다 일주일 정도 앞선 20일께 감사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민준기자

공기업 '복지 잔치'도 끝

장기근속 휴가 폐지되고 양육수당·개인연금 지원도 금지

앞으로 공공기관의 장기근속 휴가와 포상이 폐지되고 양육수당과 개인연금 지원도 금지된다.

12일 정부의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운용 지침'에 따르면 퇴직금과 교육·보육비, 의료비, 휴가·휴직, 복무 행태 등 9개 분야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40여 가지의 가이드라인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비는 물론 학원비 등 사교육비를 지원할 수 없고 대학생 학자금 무상 지원도 없어진다. 병가는 공무원처럼 연간 60일(업무상 질병·부상은 연 180일)로 제한된다. 장기근속자에 대한 기념품 지급, 포상, 안식휴가도 없어지고 퇴직 예정자에게는 기념품은 줄 수 있지만 순금, 건강검진권, 전자제품 등을 제공할 수 없다.

이 밖에도 주택자금, 생활안정자금의 무이자 융자가 금지되며 시중금리 수준의 이자를 받아야 한다.

◆3월까지 실행계획 제출해야

공공기관들은 이 같은 지침을 반영해 올해 말까지 방만경영을 해소하는 분기별 실행 계획을 3월 말까지 모두 정부에 내야 한다.

/이재용 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다시 찾아온 한파 "우린 끄떡없어요" 12일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열린 북극곰 수영축제 참가자들이 손, 머리를 흔들며 웃고 있다(왼쪽). 2014 대관령 국제 알몸마라톤 대회 참가자들은 눈보라를 헤치며 레이스를 펼쳤다. 기상청은 이날 오후부터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13일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는 등 15일 오전까지 매서운 한파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했다. /연합뉴스

의료소송 지난해 사상최다

10년 만에 2배 가까이 증가…환자 승소율 30%대로

의료소송이 지난해 사상 최다 건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대법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1300건으로 전산 추출이 가능한 2002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의료소송은 2003년 700건, 2004년 800건, 2009년 900건, 2012년 1000건으로 매년 꾸준히 늘어왔다. 소액 사건을 포함하면 2009년부터 이미 1000건을 넘었고 지난해에는 1333건에 달했다.

이와 함께 소송에서 이기는 환자와 가족도 늘고 있다. 2002년 22% 남짓이었던 승소율은 2012년 30%를 넘어섰다.

의료소송 접수 건수 추이

/윤다혜 기자 ydh[illegible]

서울시 시정모니터 올해부터 연중 상시모집 전환

서울시가 매년 초 공개 모집하던 시정 모니터 선정 방식을 연중 상시 개방 체제로 17년 만에 전환한다.

올해 18기부터는 연간 15~20명의 우수 모니터요원에게 미스터리 쇼퍼 전문 위탁 교육을 실시,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고 감시로 활동할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만 19세 이상 서울·경기·인천 시민으로 기본적인 컴퓨터 활용이 가능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윤다혜 기자

성신여대 입학사정관제 신입생 가평 꽃동네 봉사

성신여대 입학사정관제 신입생 240명이 8~10일 가평 꽃동네를 방문해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신입생들로 구성된 이번 봉사단은 사전 교육 이수 후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과 사흘 동안 함께 생활하며 식사 돕기, 위생 관리, 주변 시설 청소, 말벗 되어주기 등의 다양한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윤다혜 기자

고속도 3곳 등 도로 68곳 올해안 완공

올해 도로 사업은 줄어든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신규 착공보다 완공 위주로 이뤄질 전망이다. 또 철도 사업은 소폭 늘어난 예산을 활용해 수도권 교통난 완화에 집중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올해 예산 가운데 도로·철도·수자원·항공 등 사회간접자본(SOC) 부문에 대한 세부 투자 규모를 소개했다.

올해 도로 부문 예산은 8조3912억원으로 지난해보다 6.1% 감소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주요 간선도로망의 완공에 중점을 둬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다.

실제로 올해는 음성~충주~제천 고속도로 등 고속도로 3개(총 122.8㎞)와 국도 46개(346.3㎞), 국가 지원 지방도 14개(110.1㎞) 등 68개 도로 사업이 완공된다.

아울러 대도시 혼잡 개선을 위해 서울 시가정~암사 광역도로, 울산 국가산단 혼잡 도로 등 3개 준공사업에 집중 투자한다.

철도 예산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월곶~판교선, 인덕원~수원선 등 수도권 교통 완화를 위한 신규 철도 사업이 늘면서 지난해보다 0.7% 증가한 6조1799억원이 투입된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100억원),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226억원)의 기본계획 수립비가 반영됐고, 사업 추진이 보류됐던 월곶~판교 복선전철(20억원), 인덕원~수원 복선전철(20억원), 여주~원주 복선전철(12억원)도 기본계획에 착수한다.

특히 대형 국책사업인 호남고속철도 1단계 사업(오송~광주 송정)과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대전·대구 도심 구간)을 연내 개통해 전 국민의 이동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각각 1조1587억원, 3639억원이 투자된다. /박선옥 기자 [illegible]

중구 기업·단체 후원 잇따라

서울시 중구에 후원 릴레이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24일 디몽무교동상가번영회와 OB맥주가 구에 쌀 10㎏짜리 196포를 기증한 데 이어 메리츠화재는 관내 독거노인 세대에 전기모포 254개를 지원했다. 26일에는 코벨신리가 김장 김치 10㎏짜리 170박스를 후원했다.

빗물차단 차수판 설치 완료

서울시 강동구가 도로에서 유입되는 빗물을 차단하는 차수판 설치 사업을 완료했다.

구는 집중호우 때마다 침수 사례가 빈번하자 지난해 2억2000만원을 투입해 소상공인 점포가 있는 234개 건물에 550개의 차수판을 설치했다.

금천구 푸드뱅크·마켓 운영

서울시 금천구가 생산·유통·소비 과정에서 발생한 잉여 물품을 기부받아 필요한 이웃에게 무료로 전달하는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을 운영하고 있다.

기부 품목은 쌀·라면·통조림·농수산물 등의 식품과 화장지·비누·샴푸 등 생활용품이다.

오늘의 역사 Today in History 그림 박성현

소설가 조이스 사망

1941년 1월 13일 소설 '율리시즈'의 선구적 작가 제임스 조이스가 위궤양 수술 후 후유증으로 스위스 취리히에서 사망했다. 아일랜드의 더블린 태생인 그는 첫 소설 '더블린 사람들'이 더블린을 경멸적으로 묘사했고 외설적이라는 이유로 출간이 되지 않자 조국을 등지고 이탈리아, 프랑스, 스위스 등지로 옮겨 다니며 글을 썼다. 대표작 '율리시즈'도 출판사와 신문독자들 이유로 미국에서 연재와 출판이 거부돼 파리에서 출간되기만 했다.

개막 초읽기 들어간 '인제 빙어축제' 겨울 축제의 원조 인제 빙어축제의 개막을 일주일 앞둔 12일 남면 소양호 상류의 축제장에서 빙어등 설치 등 축제 준비가 한창이다. /연합뉴스

불임, 이젠 女보다 男탓

35~44세 남성 불임환자 여성의 5배 "늦은 결혼·업무 스트레스 때문"

국내에서 30대 후반~40대 초반의 남성 불임 환자가 급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5년간(2008~2012년)의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불임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 환자가 2008년 16만2000명에서 2012년 19만1000명으로 연평균 4.2% 증가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성별 연평균 증가율은 남성이 11.8%, 여성이 2.5%로 나타나 남성에서 불임 환자가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가임 여성(20~49세)의 나이를 고려해 인구 10만명당 진료 환자 수를 분석한 결과에선 남성은 35~44세에서 가장 크게 증가(연평균 증가율

16.2%)했으며 45~49세(연평균 증가율 12.8%)가 그 뒤를 이었다.

2012년 기준 연령별 인구 10만 명당 진료 환자 수는 30~34세 여성(3658명), 35~39세 여성(1920명), 25~29세 여성(1352명) 순으로 나타났다.

정재은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남성에서 불임이 크게 증가한 이유에 대해 "과거에는 불임을 모두 여성의 책임으로 전가하려는 사회적 풍조가 있었으나 남성 인자도 불임의 원인으로 알려지면서 최근 남성 인자에 대한 검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게다가 업무 스트레스, 고령화, 환경호르몬 등도 남성 인자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불임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는 2008년 182억원에서 2012년 230억원으로 1.3배 증가했으며 건보공단에서 지급한 2012년 급여비는 143억원이었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PC방 가려 영아 방치' 항소심서 중형

PC방에 가며 생후 15개월 된 딸을 베란다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동거 남녀가 항소심 재판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은 12일 충남 천안의 다가구주택에서 김모(30)씨와 동거한 고모(23·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1심보다 형량을 높여 징역 2년6월과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고씨에 대해 "엄마로서의 기본적 직무를 전혀 소중히 여기지 않은 데다 딸이 숨진 직후에도 별다른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도 않아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못 박았다.

/정시내기자 ydkd

필로폰 230억원대 밀수

대규모 필로폰 밀수조직 수십 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은 12일 대량의 필로폰을 밀수해 국내에 유통한 혐의로 '부장파' 두목 정모(49)씨와 운반책 유모(51)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김해 마약왕'으로 불리던 오모(4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정씨 등은 2012년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수차례에 걸쳐 중국 칭다오에서 구입한 필로폰 7kg, 시가 230억원어치를 국내에 숨겨 들여와 중간 판매상에게 넘어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정다혜기자

푸틴에게 매달리는 아베

'야스쿠니 신사 참배' 미국도 질타 · 러시아에 정상회담 개최 등 구애 공세

아프리카를 순방 중인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1일(현지시간) 모잠비크 마푸투의 공항에 도착, 현지 의장대의 사열을 받고 있다. 아베 총리는 모잠비크에서 천연가스와 석탄 개발 등 자원 외교에 주력할 것으로 출려졌다. 중국이 자원 확보와 시장 개척을 위해 아프리카에서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를 펼치고 있는 가운데 아베 총리도 신흥시장 개척을 위해 '돈 보따리'를 풀지며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AFP 연합뉴스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후 국제사회의 '왕따'가 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러시아에 구애 공세를 펼치고 있다.

'러-일 방위교류증진을 위한 각서(방위교류 각서)' 개정을 추진하는가 하면 다음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도 가질 계획이다.

12일 산케이신문 등 현지 언론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 아베 총리가 소치 올림픽이 열리는 다음달 22일 러시아를 방문해 정상회담을 갖고 푸틴 대통령에게 올해 가을 일본을 방문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전했다.

러·일 정상회담이 열리면 쿠릴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 문제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양국 정부는 오는 31일 도쿄에서 영토 문제를 논의하는 차관급 협의를 열기로 한 상태다. 지난해 도쿄에서 열린 러일 국방장관회담의 합의 내용인 양국 국방장관의 상호 방문 정례화, 합공자위대 수송기의 러시아 와견 협의 개최 등이 각서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자리에서 정상회담 일정이 구체적으로 조율될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 총리가 다음달 22일 러시아를 방문하면 일본 시마네현이 같은 날 개최하는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명칭)의 날' 행사에는 참석할 수 없게 된다.

아베 총리는 취임 이후 한국, 중국과 정상회담을 하고 싶다는 뜻을 수차례 밝혔다. 하지만 역사 인식과 영토 문제에 대한 견해 차이로 회담을 성사시키지 못했다. 게다가 최근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까지 더해져 한·중·일 3국의 관계는 최악의 상태로 치달았고, 미국 등 서방 국가와의 관계도 껄끄러워졌다. 오는 4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때 일본이 제외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행으로 일본에 대한 미국 내 여론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국제사회에서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는 일본 정부는 러시아를 통해 국제 무대에 다시금 발을 들여놓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선미기자 seonmi@metroseoul.co.kr

게이츠 '가장 존경하는 인물' 1위

프란치스코 교황은 4위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인 빌 게이츠(사진)가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로 선정됐다.

10일(현지시간) 영국 더타임스에 따르면 최근 미국, 러시아 등 전 세계 13개국 1만389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게이츠(10.40%)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9.27%)을 제치고 가장 많은 지지를 얻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3.84%)과 프란치스코 교황(3.43%)이 그 뒤를 이었다.

게이츠는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을 통해 약 30조원의 금액을 기부하며 자선사업가로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특히 아프리카 등지에서 말라리아 등 질병퇴치 사업에 힘쓰고 있다. 727억 달러(약 77조원)의 자산을 보유한 게이츠는 지난해 세계 최고 부자로 다시 등극하기도 했다.

/조선미기자

탕웨이 보이스피싱 당해 "수천만원 날렸다" 신고

영화 '색, 계'의 여주인공으로 유명한 중국 배우 탕웨이(사진)가 보이스피싱(전화사기)으로 수천만원을 날렸다.

12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탕웨이는 전날 상하이 쑹장 지역 공안 당국에 전화를 걸어 보이스피싱으로 21만 위안(약 3681만원)을 빼앗겼다고 밝혔다.

탕웨이는 11일 오후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보이스피싱의 구체적인 내용과 21만 위안이 그의 통장에서 자동 인출된 것인지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

탕웨이는 현재 쑹장 지역의 한 마을에서 영화 촬영 중이다.

/조선미기자

'동거남 대통령'의 염문설 … 뜨거운 언론·무관심한 국민 11일(현지시간) 전 세계 주요 신문이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과 여배우 줄리 가예트의 염문설을 일제히 주요 기사로 실었다. 공식적으로 결혼한 적이 없는 올랑드 대통령은 30년간 동거한 세골렌 루아얄과 헤어진 뒤 2010년부터 잡지사 기자 출신인 발레리 트리에르바일레와 동거 중이다. 사생활에 관심을 보이지 않기로 유명한 프랑스 국민들은 올랑드 대통령의 스캔들에 대해 '씨익'웃을 뿐 이라며 대수롭지 않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월가 "주말에 월 4일은 무조건 쉬어라"

승진·실적 위해 휴무포기! 의무 휴가제도 도입 확산

"한 달에 나흘은 반드시 쉬어라."

뉴욕타임스는 미국 뉴욕 월가에서 '월 4일 휴무'를 보장하는 근무제도가 확산되고 있다고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주 5일 근무제이지만 직원들이 승진과 실적을 위해 주말에도 쉬지 않는 현상이 반복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형 금융비사인 뱅크오브아메리카 메릴린치는 최근 사내 전달사항을 통해 "한 달에 나흘씩 꼭 주말에 쉬어야 한다"며 "특히 사내에서 직급이 가장 낮은 연구원, 연구보조원들은 한 달에 나흘씩 꼭 쉬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여름 런던사무소에서 일하던 인턴 직원이 사흘 밤낮을 쉬지도 못하고 일하다 숨진 사건이 발생한 데 따른 고육책으로 보인다.

뉴욕 소재 세계적인 대형 금융비사인 골드만삭스 역시 지난해 "직원들은 가능하다면 반드시 주말에는 일하지 말아야 한다"는 지침을 내리기도 했다. JP모건체이스는 '주말 의무휴가제' 방안을 연내에 도입할 예정이다.

/이국명기자 kmlee@

'이스라엘 매파 거물' 샤론 전 총리 사망

아리엘 샤론 전 이스라엘 총리가 오랜 투병 끝에 11일(현지시간) 타계했다. 향년 85세.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성명을 통해 "샤론 전 총리가 이날 텔아비브 근처에 있는 병원에서 세상을 떠났다"며 애도를 표했다. 샤론은 지난 2006년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 8년간 혼수상태로 투병해왔다.

군인 출신인 샤론은 2001~2006년 총리로 재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노련한 정치인이자 군인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스라엘민은 그의 추진력과 결단력을 높이 평가하며 '불도저'라는 별명을 붙여주기도 했다.

하지만 팔레스타인 측에선 그를 '범죄자'로 여긴다. 샤론의 타계 소식이 전해지자 무장조직 하마스는 "팔레스타인에 재앙을 안겨준 범죄자, 지옥에나 가라"며 저주를 퍼부었다.

/조선미기자

market index <10일>

코스피	코스닥	금리	환율
1926.54 (-7.07)	510.19 (-1.41)	2.91 (+0.01)	1061.00 (-2.00)

"무료 체험이라더니…" 결제 피해 조심

무료 체험 광고를 보고 문의했다가 반품을 거절당하는 등의 소비자 피해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010년 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접수된 무료 체험 소비자 피해 상담 1952건을 분석한 결과 60.5%가 반품 거절이나 지연 등 계약 관련 피해였다고 12일 밝혔다. 법과 제도(14.7%), 품질과 서비스(9.4%), 가격(2.7%) 등의 피해 상담이 뒤를 이었다. 계약 관련 피해 상담 중에서는 무료 사용 기간에 대한 다툼이나 청약 철회 거부 등에 따른 상담이 47.6%로 가장 많았다. 반품을 거절(34.1%)하거나 문의만 했는데도 시용 상품을 발송하고 소비자의 동의 없이 물건값을 카드 결제(5.4%)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국명기자

갑질과 동반성장 사이 '두 얼굴의 LG'

두 오너의 '정도경영' 신년사 진정성 의심케하는 사례들 비일비재

Issue&View LG그룹 공공연한 갑의 횡포

/김태균기자

"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호흡하는 대표 기업으로 자리매김하자" -구본무 LG그룹 회장

"정도경영과 준법 실천은 사회와 고객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약속이다." -구본준 LG전자 부회장

올해 신년사에 내놓은 LG그룹과 LG전자 오너의 신년사다. 구본무 회장과 구본준 부회장은 전문경영인이 아닌 회사의 오너로 형제 사이다. 그만큼 그들의 한마디는 그룹 전체에 절대적인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LG그룹은 '사회와 호흡하는 기업, 정도경영 기업'과는 전혀 다른 행태를 보이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LG전자, 영업점에 손해 떠넘기기

새해로 접어든 지 불과 열흘도 안돼 LG전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17억원이라는 징계를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전자는 지난 2008년 6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29개 영업전문점에 441건, 1302억900만원의 빌트인 가전제품 납품계약과 관련, 납품대금의 20% 또는 100% 금액에 대해 연대보증을 요구했다.

심지어 거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워크아웃 건설사, 부도 가능성이 높은 건설사 등의 경우 영업전문점에 판매대금 전액에 대해 연대보증을 서게 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LG전자가 연대보증 실적을 영업전문점의 실적평가에 반영하고, 영업전문점이 자신의 연대보증 요구를 거부할 경우 판매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런 사실을 놓고 보면 오너가의 신년사는 정치인이 선거 때만 사용하는 수사인지 아니면 오너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실행 조직이 따로 노는 것인지 의심케 한다.

◆구호뿐인 LG전자의 정도경영

한때 LG그룹의 소위 '갑의 횡포' 사례는 심각했다. 특히 가전제품과 휴대전화 등이 주력인 LG전자의 경우 제조업이라는 특성상 적은 이익률을 '원가 절감'으로 메우는 사례가 많았다. 이 과정에서 납품업체 또는 협력업체에 희생을 분담토록 해온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이는 제조업 분야에 국한 된 것이 아니라 통신서비스 분야에서도 비일비재했다. 지난 2000년 중반 LG유플러스에 서비스를 납품해던 모 업체 사장은 "협력업체라는 이유 하나로 매출과 실적 등 모든 것을 LG유플러스의 지침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수년 전부터 불어닥친 '경제민주화'의 요구로 이런 행태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LG그룹은 다양한 '동반성장' 방안을 쏟아냈다. LG전자만 봐도 ▲지난 2011년 5월 '1·2차 협력회사와 동반성장' 다짐 ▲2012년 4월 '협력회사 간 공정거래, 동반성장 협약식' 개최 ▲2013년 3월 '2013 LG전자 동반성장 결의대회' 등 해마다 연례행사처럼 이를 홍보해왔다.

이런 행태로 연해 오너들이 주창하는 대로 LG가 '사회와 호흡하는 기업, 정도경영 기업'인지 진정성이 의심스럽다.

뉴스&뉴스

지난해 국채발행 사상최대

● 12일 금융투자협회와 동부증권에 따르면 지난해 발행된 국채 규모는 사상 최대인 135조7486억원으로 전년보다 21.4% 증가했다. 국채 발행액은 2008년 59조원에서 2009년 94조원으로 급증했다가 2010년 86조원으로 다시 소폭 줄었다. 하지만 2011년 103조원으로 처음 100조원을 돌파한 뒤 2012년 112조원에 이어 지난해 다시 급증했다. 한편 지난해 특수채 발행액은 88조3784억원으로 전년보다 17.3% 줄었다. /박선옥기자

손상지폐 교환액 13억 넘어

● 1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3년 중 손상화폐 교환 및 폐기 규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은 화폐교환 창구에서 교환된 손상 지폐는 13억7758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2년 9억8000만원보다 39.4% 늘어난 수준이다. 이 가운데 5만원권이 7억8888만원(57.3%)으로 가장 많았고 1만원권(39.9%), 1000원권(1.6%), 5000원권(1.3%)이 그 뒤를 이었다. /송민석기자

여심 흔드는 웨딩드레스의 숲 12일 오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41회 웨딕스코리아를 찾은 한 예비 부부가 웨딩드레스를 살펴보고 있다. 10일부터 개최된 웨딕스코리아는 국내 최대 규모의 웨딩박람회다. /연합뉴스

쑥쑥 크는 ETF시장…거래액 세계 4위

지난해 재테크 상품의 투톱
순자산 32% 늘어 19조 훌쩍
ELS도 47조여억 발행 '선전'

지난해 재테크 시장의 승자는 상장지수펀드(ETF)와 주가연계증권(ELS)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두 상품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렸다. 저금리 기조와 더불어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중위험·중수익을 좇는 투자심리가 작용했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ETF 시장의 순자산 총액은 19조4217억원으로 전년 대비 32.0% 늘어났다.

지난해 펀드 환매 행렬이 이어지면서 주식형 펀드 잔고가 감소하는 속에서 ETF가 빛을 발했다. 주식형 펀드 잔고에서 ETF의 순자산 총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27%까지 늘었다.

채권형 ETF가 강세를 보이는 동시에 합성 ETF 등 신상품이 속속 출시되고 자산운용사가 보수 인하 경쟁에 나서면서 ETF 시장의 몸집이 커졌다. 연평균 50%씩 성장을 거듭하며 하루 평균 거래대금은 미국, 일본, 영국에 이어 세계 4위까지 치고 올랐다.

미국 테이퍼링(양적완화 축소)과 이로 인한 신흥국의 자금 유출 우려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개별 종목을 직접적으로 투자하기보다 분산 투자와 레버리지 효과 등을 두루 누릴 수 있는 ETF로 투자 수요가 쏠렸다.

코스피지수가 장기 박스권을 상향돌파한다는 기대감이 낮아진 것도 ETF 쏠림 현상에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사상 최대 발행을 기록했던 ELS도 ETF만큼은 아니더라도 다른 투자 상품에 비해서는 높은 관심을 받았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발행된 ELS 규모는 45조6860억원으로 전년 대비 3.8% 줄어들었다. 2012년 ELS 발행이 47조5000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탓에 소폭 감소세를 보였으나 역대 발행치와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유현정기자

최대 8000억 탈세 악용 면세유 제도 전면개편

정부가 연간 조세 감면액 규모가 1조6000억원에 달하는 면세유 세제지원에 대해 전면적인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면세유와 연구·개발(R&D), 근로장려세제(EITC) 등 3개 조세지출 제도의 타당성과 개선방안을 검토하는 종합 심층평가 작업에 들어갔다.

정부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내달 심층평가 결과를 내놓는 대로 부처 간 협의를 거쳐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안이 정해지면 올해 세법 개정안에 반영하고, 반영하지 않더라도 향후 세법 개정에 지속적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면세유는 휘발유, 경유 등에 붙는 44%의 세금이 붙지 않아 시중 가격보다 현저히 낮다는 이유로 차액을 노린 탈세 행위가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지원경제학회 등에 따르면 면세유로 인한 세금 탈루액은 연간 7000억~8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면세유로 인한 농어민 혜택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점에서도 제도 개선에 힘이 실린다. /이선옥기자

로또복권 제580회

1등 당첨번호						2등보너스숫자
5	7	9	11	32	35	33

등위	당첨방법	당첨금(원)
1등	6개 숫자 일치	[illegible]
2등	5개 숫자 + 2등 보너스 숫자	[illegible]
3등	5개 숫자 일치	1,421,4[illegible]
4등	4개 숫자 일치	50,000
5등	3개 숫자 일치	5,000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41,142
TEL. (02)721-9800, FAX (02)730-1651
발행·편집인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광희
편집국장 조인호
서울광고문의 (02)721-9891~3
부산광고문의 (051)852-2100
독자센터 (02)721-9855

금융업계 "해외 진출이 살길" 한목소리

저금리 기조에 국내 수익성 악화 ·신한·농협 등 수장들 이어 금감원장도 '글로벌화' 주문

금융사들이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 포화 상태로 치닫고 있는 국내시장에서 벗어나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 들어 금융감독원장은 물론 각 금융기관 수장들이 앞다퉈 해외 진출에 대해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금융업계가 해외 진출에 나서는 것은 경쟁이 치열해진 국내 금융업계를 벗어나 안정적인 먹거리를 찾아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 3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범금융기관 신년인사회에 참석, 금융업계 수장들에게 경영 체질 개선과 해외 진출 확대 등에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최근 저금리 기조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고전하고 있는 금융업계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으려면 해외 진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금융권 수장들 또한 지속적으로 해외 진출을 강조하고 있다. 한동우 신한금융 회장은 최근 저금리 저성장 기조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현지화와 신시장 개척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협금융지주도 해외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임종룡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최근 농업 생산과 유통 노하우의 기술력을 해외에 전파하는 데 농협금융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보험업계의 해외시장에 대한 열망 또한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코리안리 원종규 사장은 신년간담회에서 향후 해외 매출 비중을 80%까지 끌어올리고 외국 손보사를 인수할 방침을 정했다고 말한 바 있다.

한화생명 차남규 사장도 앞으로의 5대 중점 경영 전략을 발표하면서 올해부터 해외 법인을 빠른 시일 내 안정화시키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해외 펀드 등의 수익 추구형 자산 등의 투자 대상 다각화를 통해 위험은 최소화할 방침이다. 안정적 배당수익 취득이 가능한 해외 자산운용사 인수를 추진해 신규 수익 기반을 발굴할 예정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현재 걸음마 단계인 금융사들의 해외 영업이 결실을 맺으려면 현지에서 더욱 적극적인 영업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국내에서 수익이 한계에 부딪힌 상황에서 더 많은 금융사들이 해외로 눈을 돌릴 전망"이라고 말했다.

/박정원 기자 pjw88@metroseoul.co.kr

"전국 스키장에서 광대역 LTE-A 쓰세요" 전국 17개 스키장에서 '광대역 LTE-A' 서비스를 제공 중인 KT는 강원도 원주시 한솔오크밸리 스키장에서 '광대역 커피 트럭' 이벤트를 11일 진행했다. KT는 곤지암리조트, 지산리조트 등 5곳의 경기권 스키장에서는 광대역 LTE를, 하이원 스키장, 보광휘닉스파크 등 8곳의 강원도 스키장과 무주리조트, 충주 사조리조트, [illegible] 에덴밸리리조트 3곳에서는 LTE-A를 구축해 빠르고 안정적인 광대역 LTE-A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KT 제공

등골 휜 맹모 '도서관지교'

저렴·질 좋은 교육 제공하는 공영 문화·체육시설 낀 단지 선호 추세 타고 집값도 강세

그간 유명 학군과 학원가를 좇던 맹모들이 공공 도서관·문화·체육시설 등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경제적인 부담은 덜면서도 자녀들에게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1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교육비 부담이 늘어지면서 저렴한 비용으로 자녀들을 기르칠 수 있는 공영 교육·문화·체육센터 인근 아파트가 주목받고 있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문화·체육시설 등을 이용할 경우 시설 학원비보다 훨씬 저렴한 2만~3만원 정도로 다양한 운동과 학과 공부를 배울 수 있다. 또 공공 도서관에서는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공부를 하거나 책을 읽는 게 가능하다.

이에 이들 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주거단지의 경우 선호 지역으로 꼽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찾는 사람이 많다 보니 가격도 자연스럽게 강세로 연결되고 있다.

실제로 평촌신도시 은하수 신성아파트는 안양시 비산동 일대에서 3.3㎡당 매매가가 1352만원으로 가장 높다. 단지 바로 옆에 위치한 청소년수련관과 여성문화회관이 가격에 영향을 많이 미쳤다.

서울 도봉구 창동의 동아 청솔 역시 바로 옆에 창동문화체육센터, 창동시민운동장 등의 체육시설을 갖춘 덕분에 지난 3년간 전용면적 59㎡ 기준 전셋값이 36.6%나 상승했다.

김근옥 부동산플래너 팀장은 "교육열이 높은 우리나라의 특성상 교육 여건이 내 집 마련을 하는 데 가장 큰 기준이 되곤 한다"며 "이에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교육을 제공받고 면학 분위기도 조성되는 공공도서관·문화·체육시설 인근 아파트를 찾는 수요가 더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선옥 기자 psy@[illegible]

신흥국 서로 다른 '테이퍼링 몸살'

금융가 사람들

■ 대신증권 이진호 연구원

지난해 주요 아시아 신흥국들은 테이퍼링(양적완화 축소) 이슈로 큰 몸살을 앓았다. 인도네시아, 투피아화 와 인도 루피화는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양적완화 축소에 나설 경우 가장 큰 타격을 받을 통화로 꼽혔다. 이 때문에 양적완화 축소 이슈가 올해 아시아 경제에 미칠 파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이진호(사진) 연구원은 지난 8일 메트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 연준의 테이퍼링이 결정됐지만 현재까지 신흥국 금융시장은 시장의 우려만큼 충격을 받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테이퍼링이 신흥국 전반에 주는 영향은 완화됐으며 개별 국가 간 상이한 흐름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게 이 연구원의 설명이다.

그는 "이 같은 양상은 대외수지 구조, 수출 의존도, 경제성장세 등 경제 펀더멘털의 차이에 기인한 것"이라며 "올해도 아시아 신흥국 금융시장은 차별화 양상을 지속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앞으로도 지난해 테이퍼링 이슈 기간 동안 나타난 경제 펀더멘털 차별화는 지속될 전망이다. 이 연구원은 "말레이시아는 상대적으로 국내총생산(GDP) 내 높은 수출 비중(최근 1년간 84%)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인도가 순수출 개선의 효과를 이어갈 수 있을 전망"이라면서 "다만 높은 물가 부담으로 내수 회복세는 빠르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현정석 기자 [illegible]

현대카드 정태영 대표 "인문학 열풍, 다소 엉뚱"

현대카드 정태영(사진) 대표가 최근의 인문학 열풍과 관련, 자신의 소회를 트위터에 남겨 화제가 되고 있다.

정 대표는 최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경영을 위한 인문학이 열풍이라는데 다소 엉뚱하다"며 "기업에 필요한 건 인문학적 감성이지, 인문학 지식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인문학은 인문학으로서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 기자

메시지 속 URL 노터치

사상최대 카드고객 정보 유출 스미싱 범죄 피해 예방 이렇게

'신용카드 연체로 인해 신용등급 1급이 하락됐습니다. 126.12.24X.12X'

다음달 전세자금대출을 계획 중인 직장인 김현준(36)씨는 최근 스마트폰으로 이 같은 문자메시지(SMS)를 받고 깜짝 놀랐다. 자칫 전세대출 이자가 올라갈지도 몰라 서둘러 문자 속 인터넷주소(URL)를 클릭했더니 이동사에서 차단한 사이트라는 문구가 딱 한 번 더 놀랐다.

KB국민·롯데·NH농협 등 대형 카드사들의 사상 최대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이 같은 황당함을 경험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번 사고로 이름, 주민번호, 카드번호, 비밀번호는 물론 신용카드 사용 내역까지 유출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SMS와 피싱(Phishing)을 결합한 '스미싱'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된다. 안랩·이스트소프트 등 보안업계의 도움을 받아 스미싱 피해 예방법을 알아본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문자메시지나 메신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받은 URL은 철저히 무시하는 것이다. 금융사·우체국·관공서 등 대부분 믿을 만한 기관에서는 문자에 절대 URL을 포함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혹시 실수로 URL을 클릭해 파일을 내려받았다면 앱을 설치하지 말고 바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휴대전화 환경 설정에서 '알 수 없는 출처(소스)의 허용'을 금지로 설정하는 것도 한 가지 요령이다.

최근에는 PC를 이용해 스마트폰을 감염시키는 악성코드도 발견됐기 때문에 스마트폰 설정의 USB 디버깅 모드를 비활성화하는 것이 좋다.

모바일 전용 백신 사용도 필수다. 모바일 전용 백신의 실시간 감시를 켜놓고 주기적으로 검사한다면 스미싱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안랩 안전한 문자 등 스미싱 탐지 전용 앱을 사용하는 것도 유용하다. 비교적 안전한 것으로 알려진 아이폰 사용자들도 방심해서는 안 된다. 웹 브라우저인 사파리를 통해 스미싱과 유사한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스트소프트 관계자들은 "스미싱이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고 있어 자칫 방심했다가는 피해를 입기 십상"이라며 "소액결제를 차단하거나 결제 금액을 제한하는 사전 예방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서승희기자 kmlen@metroseoul.co.kr

삼성전자 아티브 북9 라이트 신제품 출시 삼성전자가 블러시 핑크와 라임 그린 색상이 돋보이는 '아티브 북9 라이트' 노트북 신제품을 12일 출시했다. 아티브 북9 라이트는 SSD를 탑재해 빠른 부팅 속도와 프로그램 실행 속도를 갖췄으며 기존의 미네랄 애시 블랙, 마블 화이트 색상에 이어 블러시 핑크, 라임 그린 색상 제품을 새로 추가했다. /삼성전자 제공

저축은행·캐피털도 고객정보 유출 추정

외국계 은행과 카드사에 이어 저축은행과 캐피털사에서도 최대 수십만 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일부 저축은행과 캐피털사도 최근 검찰에 적발된 고객 정보 유출 대출 모집인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한국씨티은행과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의 내부 직원과 대출 모집인 등이 13만여 건의 고객 정보를 유출한 사실을 적발했다. 또 국민카드, 농협카드, 롯데카드에서 1억400만 건의 고객 정보가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내부 통제를 하고 있는 외국계 은행이나 카드사도 이런 상황에서 고객 정보 관리가 취약한 저축은행과 캐피털사에서는 대규모 고객 정보가 빠져나갔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금융사 정보 유출 문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금융 당국에도 비상이 걸렸다.

금감원은 최수현 원장의 특별 지시로 국민카드 등 정보 유출 카드사에 대한 특검을 시행하며 모든 금융사를 대상으로 고객 정보와 관련된 내부 통제 매뉴얼을 내려보내 자체 점검 결과를 긴급 보고하도록 했다.

특히 정보 유출 금융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 아래 최고 수위 제재로 전 금융권에 경각심을 일깨운다는 방침이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금융사의 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임원 문책성 경고 등 동원 가능한 중징계를 모두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선옥기자 pso@

OS 3파전 노리는 타이젠폰

생체인식·웨어러블 기기와 함께 올해 스마트폰 시장 3대 화두로

올해 스마트폰 시장의 키워드는 운영체제(OS) 대전, 생체 인식 기술의 경쟁, 웨어러블 기기 연동 등이 핵심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다음달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모바일 기기 전시회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14'에서 인텔 등과 손잡고 개발한 OS인 '타이젠'을 탑재한 스마트폰을 첫 공개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는 타이젠 앱 스토어 개설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스마트폰 OS는 애플의 'iOS'와 구글 '안드로이드'가 세계시장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타이젠 진영은 삼성전자와 인텔 외에도 NTT도코모, 노키아, 화웨이, SK텔레콤, KT 등 제조사와 유통사, 통신사까지 아우르고 있어 애플과 안드로이드 대항마로 떠오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생체 인식 기술도 올해 스마트폰 시장 3대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애플 '아이폰5S'와 팬택 '베가 시크릿 노트', '베가 시크릿 업' 등은 스마트폰에 지문 인식 기능을 도입하며 보안 부문에서 이용자들에게 신뢰를 쌓았다. 지문 인식 기능에 이어 삼성전자는 '홍채 인식' 기능을 스마트폰에 도입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업계에선 이르면 4월 출시 예정인 '갤럭시S5'에 홍채 인식 기술을 탑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일부 제조사는 사람의 표정까지 읽는 '안면 인식' 기술 도입까지 검토 중이어서 주목된다.

지난해 2월 MWC 2013에서 공개된 타이젠폰 시제품 /삼성전자 제공

웨어러블 기기와의 연동 부분도 주목할 점이다. 지난해 구글은 안드로이드 플랫폼과 연동 가능한 스마트 안경 '구글 글라스'를 선보였고 삼성전자는 '갤럭시 노트3', '갤럭시 노트' 등과 연동 가능한 스마트 시계인 '갤럭시 기어'를 선보였다.

올해 구글은 '구글 글라스'의 소비자용 버전을 출시한다. 이는 지난해 출시된 개발자용 버전보다 가볍고 다양한 기능이 탑재될 것으로 예상되며 가격도 다소 낮아질 전망이다. 앞서 출시된 개발자용 구글 글라스의 경우 가격이 1500달러(약 160만원)로 다소 비싼 편이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기어2' 출시를 준비 중이다. 업계에선 3월 출시되는 갤럭시S5와 함께 갤럭시 기어2가 공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갤럭시 기어2의 경쟁작인 애플 '아이워치'도 이슈가 될 전망이다. 아이폰 시리즈와 연동될 아이워치는 아직 구체적인 세부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어떤 기능이 담길지 기대감을 자아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는 스마트폰 시장이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영기자 ljy0403@metroseoul.co.kr

LG CNS "글로벌 수주 새 역사 쓸 것"

LG CNS가 올해는 연초부터 공격적으로 해외시장 확대에 나선다.

김대훈 LG CNS 사장은 10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 서울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4년 리더 킥오프' 행사에서 "2014년에는 글로벌 기업 LG CNS의 새 역사를 쓰자"며 "연초부터 해외사업 수주에 총력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김 사장은 이날 행사에서 올해를 '글로벌 기업 도약의 중요한 변곡점이 되는 해'로 지정하고 LG CNS 임원과 프로젝트 매니저, 팀장 등 리더 600여 명에게 ▲위기의식 재무장 ▲솔루션 기반 해외사업의 빠른 성과 창출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 등 3가지를 당부했다.

/이재영기자

25일 코엑스서 '캐나다 유학박람회'

어학 연수지로 인기 높은 캐나다 유학의 궁금증을 한자리에서 풀 수 있다.

우리에듀케이션은 '캐나다 칼리지&유학박람회'를 2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연다고 12일 밝혔다.

캐나다 각 지역을 대표하는 대학과 조건부 입학이 가능한 어학원의 입학 담당자에게 일대일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빠른 수속과 비자 상담을 통해 가장 적합한 학교와 전공 선택, 졸업 후 취업, 이민까지 원스톱 컨설팅도 가능하다.

참석자 중 추첨을 통해 애플의 아이패드 레티나 미니 등 푸짐한 경품도 제공하며 박람회 현장에서 수속 등록 시 최대 100만 상당의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캐나다 칼리지&유학박람회 무료 참가 신청은 우리에듀케이션 박람회 홈페이지(www.wooriedu[illegible].com/fairRegister)에서 가능하다.

'스포츠의 해' 고화질·대형 TV 잘나가네

온라인 판매 한달 사이 20% 이상 늘어나

다음달 소치 동계올림픽을 시작으로 6월에는 브라질 월드컵, 9월에는 인천 아시안게임까지 2014년은 대형 스포츠 이벤트가 잇따라 열리는 해다. 이를 반영하듯 온라인 마켓에서는 벌써부터 대형·고화질 TV의 수요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주요 온라인몰에 따르면 최근 한 달간 TV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했다. 주요 판매 제품 가운데 스포츠를 실감 나게 볼 수 있는 40인치 이상의 대형 TV와 고화질 풀HD TV 판매량은 같은 기간 각각 30%와 20%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G마켓에서는 최근 한 달 동안 LED TV 판매가 전년 대비 20% 증가했다. 그중에서도 중소 브랜드 제품 판매는 62%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G마켓 TV 베스트셀러에는 중소 브랜드의 40인치 이상 제품이 다수 올라오는 등 대형 TV 중심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는 것이다.

옥션에서도 최근 한 달간 전년 동기 대비 LED TV의 판매량이 55% 증가했다. LG 3DTV(50인치)는 2배 이상 증가했고, LG LED TV(50인치)는 55% 판매가 늘었다. 중소 브랜드의 LED TV(50인치)의 경우 3배 이상 판매가 늘었다. 가장 인기 있는 제품으로는 LG의 42인치 풀HD LED TV로 화질이 좋은 HD LED TV가 인기를 얻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런 가운데 인터파크는 삼성과 LG를 비롯해 중소 브랜드 TV 등 가전제품을 특가에 판매하는 '2014, 내 방에서 즐기는 세계 스포츠 대전'을 열고 있다. 옥션 가전전문관에서도 현재 가전제품의 특가 찬스 기획전을 벌이고 있어 다양한 TV를 최대 32%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인터파크 쇼핑 디지털 가전팀 이형화 팀장은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소치 동계올림픽 때문에 연초부터 대형 및 고화질 TV 판매량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며 "올해에는 동계올림픽·월드컵·아시안게임 등 국제 스포츠 빅 이벤트가 몰려 있어 가정에서 현장의 생동감을 느낄 수 있는 관련 가전제품이 호황을 누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정해일기자 pmw@metroseoul.co.kr

'영양만점' 간편식의 유혹

커피전문점 얼리버드족 겨냥 아침 메뉴 잇따라 선봬

새해가 되면서 건강을 지키기 위해 아침밥을 챙겨 먹겠다고 결심하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다. 연초에는 출근 전 아침 시간을 활용해 자기 계발을 하려는 직장인들로 어학원이나 스포츠센터가 붐비기도 한다.

커피전문점 업계는 이런 소비자들의 요구에 맞춰 간편하면서도 '영양' 면에서 든든해 한 끼 식사로도 손색이 없는 신메뉴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특히 채소를 주원료로 한 수프·죽, 연어샐러드 등으로 건강해진 메뉴들이 많은 것이 최근 특징이다.

할리스커피는 쫀깃한 바게트 볼 속에 담백한 양송이 수프를 담아 부드러운 빵과 함께 먹는 머쉬룸 수프볼을 선보이고 있다.

배빈스커피도 고객들의 다양한 취향을 충족시키기 위해 연어 샐러드 컴비네이션, 프렌치 토스트 컴비네이션, 뉴욕 버거 컴비네이션 등의 메뉴를 선보이고 있다.

던킨도너츠는 오리지널 커피 또는 오렌지 주스와 함께 먹을 수 있는 굿모닝 팬 햄에그 잉글리쉬머핀, 웨스턴 오믈렛 잉글리쉬머핀, 할라피뇨 소시지 잉글리쉬머핀 등 총 4종의 모닝콤보 세트를 출시했다.

드롭탑도 '양송이 스프'(사진) 등 건강에 좋은 채소 수프 3종을 선보였다.

양송이 스프는 가장 대중적으로 사랑받는 버섯인 양송이를 재료로 사용해 고소한 양송이의 향과 맛이 크림과 부드럽게 조화를 이룬 크림수프다.

양송이는 섬유질과 단백질, 비타민 D가 풍부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브로콜리치즈 스프'는 비타민의 보고라고 불리는 브로콜리와 풍부한 치즈 맛으로 여성들의 건강과 미용에 특히 좋다. '포테이토 스프'는 큼직큼직한 감자와 베이컨의 맛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담백하면서도 짭조름한 맛이 일품이다. /정해일기자

한우 '연도' 확인하고 사세요 홈플러스가 이번 설을 맞아 12일부터 판매를 시작한 '참맛알림 한우세트'에는 마블링뿐 아니라 한우의 육질 등급 부위, 숙성 등에 따른 연도(軟度: 연하기 정도)를 표기하는 국립축산과학원의 시스템이 적용돼 소비자들이 등급별 점수를 확인할 수 있다. /홈플러스 제공

NS홈쇼핑 "설 음식 장만하고 선물 받으세요"

NS홈쇼핑이 TV 홈쇼핑 구매자를 대상으로 설날 음식부터 차례상 준비까지 쉽게 준비하고 덤으로 선물까지 증정하는 '새해 복 많이 대잔치' 행인 행사를 벌인다.

이와 별도로 설날 음식 및 차례상 준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13일 오후 3시35분에는 상주반건시를, 15일 오후 5시55분에는 사조해물만두, 16일 오후 6시35분에는 용대리황태, 17일 오전 11시35분에는 전철우 LA갈비 등 상품을 집중 편성해 방송한다.

올 외식업계 트렌드는 '전통의 재해석'

다섯가지 아름다운 한방차·현대풍 떡 메뉴 등 출시

올해 시작과 함께 외식업계에 심상찮은 '전통' 바람이 불고 있다.

식을 줄 모르는 한류 열풍에 우리 전통의 멋과 맛을 살린 제품과 메뉴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한방차·전통주·전통 음식 등 이른바 '전통'을 콘셉트로 내세운 제품이 잇따라 출시되며 인기도 끌고 있기 때문이다.

코리안 티 카페 '오가다'는 한국의 멋과 정서를 재해석한 업체로 잘 알려져 있다. '다섯 가지 아름다운 한방차'라는 의미를 지닌 이 업체에선 석류 오미자차, 생강 진피차 등 핸드메이드 한방차를 비롯해 제주 한라봉 주스, 청도 홍시주스, 제주 한라봉 빙수, 오미자 베리 빙수 등 국내산 천연 재료를 사용한 건강음료와 인절미 브레드 등의 한국식 디저트를 제공하고 있다.

삼립식품이 운영하는 '빚은'은 전통 식품인 떡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해 소비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떡 전문 프랜차이즈다. 이

곳에선 송편, 두텁떡, 경단 등 전통 떡부터 아침 식사 대용으로 알맞은 영양 찰떡과 떡 케이크, 선물세트, 폐백 떡까지 다양한 품목을 100% 국내산 쌀로 만들어 판매한다.

장년층 이상이 즐기는 전통주로 인식돼 있는 막걸리 또한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다시 인기를 끌고 있다.

그 인기를 엿듣기라도 하듯 젊은층 고객이 많이 찾는 맥주 전문점 '압구정 봉구비어'에서는 국순당의 신개념 캔 막걸리인 '아이싱'을 즐길 수 있다.

아이싱은 막걸리의 수요층을 확대하기 위해 국순당이 'RTD(Ready To Drink) 트렌드'에 맞춰 개발한 제품으로, 알코올 도수가 4%로 낮으며 젊은층에 익숙한 자몽 과즙을 첨가해 상큼하고 새콤한 맛과 특유의 청량감이 조화를 이룬다.

업계 관계자는 "한류 바람과 더불어 '웰빙 힐링'에 대한 관심이 2014년에도 이어지면서 맛과 건강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우리의 전통 메뉴들이 계속해서 사랑받고 있다"며 "전통과 트렌디라는 전혀 다른 문화가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며 젊은 고객층에게 감각적으로 어필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인기 요인이다"고 말했다. /정해일기자

대통령의 '소통'

정론탁설

유 병 필
<언론인>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중 최대 관심사는 역시 '소통'이었다. 물론 답변 국정 운영이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지난해 여야 관계를 지켜본 국민들의 관심은 얼어붙은 정국을 대통령이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에 모아졌다. 최근 도중 소통에 관한 질의응답에서 박 대통령은 "원칙에 어긋나는 입장에서 소통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못 박았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국가 최고 통치권자로서 야당의 주장에도 귀를 기울여야 하고 원칙과 상식을 벗어난 말이라도 때로는 살펴야 마땅하다. 최근 여당 중진인 김무성 의원이나 상임고문들은 한결같이 대통령의 소통을 주문하고 있다. 심지어 정무장관을 새로 두어야 한다는 건의도 있다. 이러한 제안은 냉각된 정국을 대통령이 풀지 않고서는 국정 난제를 원만하게 수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 1년간은 국회가 거의 식물 상태에서 허송세월을 보냈다.

올해는 박 대통령이 밝힌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실현의 첫해가 된다. 경제혁신의 핵심을 이루는 공공개혁은 이러 부분에서 충돌할 소지가 많다. 코레일 파업에서 볼 수 있듯 노사 관계가 공기업 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의료계도 한 차례 태풍을 예고하고 있다. 이 밖에도 이해 집단 간에 밥그릇 싸움이 적지 않게 도사리고 있다.

이러한 난제는 무엇보다 국민들과의 소통으로 풀어야 하고 특히 야당의 협력이 따라야 가능하다. 지난 어두운 시절에도 박정희 대통령은 나름대로 소통의 채널을 가동시켰다. 청와대 참모진은 물론 국가기관을 통해 귀를 열어놓았다. 여기에다 [illegible] 각계각층과 폭넓은 접촉과 대화를 하며 민심을 살폈다. 기업인과 근로자, 농민에 이르기까지 속마음을 읽는 데 열성을 보였다. 물론 정권 말기에는 그렇지 못해 비운을 맞았다는 평가는 있다.

이제 대통령은 국정의 중심에 서서 정치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 대통령 자신은 물론 참모들을 통해 민의를 수렴하고 야당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청와대 정무수석의 존재 의미도 희미해진 지 오래다. 정치는 원칙만 갖고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타협이 이뤄져야 생동할 수 있다. 자신의 주장이 아무리 옳다고 해도 국민이나 야당을 설득시키지 못하면 실행하기 어렵다. 대승적 차원에서 대통령의 소통이 이뤄져 불통의 이미지를 씻어야 국정의 숨통을 틀 수 있을 것이다. 박 대통령은 '법치와 원칙'을 중시하지만 한비자(韓非子)가 말한 "법치의 완성을 정치의 목적으로 보았다"는 점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포토프리즘

대체 누구시길래?

국내 일정을 마친 류현진이 지난 10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미국 로스엔젤레스로 출국하기에 앞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날 출국장에는 수많은 취재진이 몰려 인터뷰 [illegible] 방불했다. 지난해 첫 출국 당시 "내년에는 더 많은 취재진이 공항에 오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던 류현진은 이날 유난히 밝은 표정으로 인터뷰에 임해 올 시즌 활약을 예고했다.

/손진영기자 son@metroseoul.co.kr

"김연아만 있나요?"

뉴스룸에서

유 순 호
<연예스포츠부 차장>

2014 소치 동계올림픽이 2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또 한 번 김연아 신드롬이 불어올 조짐이다.

이달과 지난달 차례대로 열린 국내외 대회에서 최상의 기량을 뽐낸 김연아는 올림픽 무대에서 이변이 없는 한 두 번째 금메달을 목에 걸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국민들은 그가 펼칠 아름답고 완벽한 경기를 만끽하기만 하면 된다.

국민의 관심이 온통 김연아에 쏠려 있는 요즘 소치 올림픽을 향한 소중한 승전보가 이어지고 있다. 변방 중의 변방으로 취급돼온 썰매 세 종목 봅슬레이·루지·스켈레톤의 선수들이 약속이나 한 듯 국제대회 기록들을 갈아치우고 있다.

봅슬레이는 남자 4인승과 2인승, 여자 2인승 등 모든 종목에서 최초로 올림픽 티켓을 따냈고, 루지에서도 사상 최초로 4종목에 모두 출전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 스켈레톤의 윤성빈은 세계 톱 10의 기량을 보이며 올림픽 티켓을 거머쥐었다.

이들이 제대로 된 경기용 썰매는 물론 정식 트랙조차 없이 훈련해왔다는 얘기는 잘 알려져 있다. 더욱 놀라운 점은 대표팀 대다수가 어린 시절부터 전문 코칭이라고는 받아본 적이 없는 선수라는 점이다.

봅슬레이 남자 대표팀 에이스 원윤종은 4년 전까지만 해도 체육교사를 꿈꾸던 평범한 대학생이었고, 여자 대표팀 파일럿 김선옥은 육상 단거리 선수로 뛰다가 2년 전 이 길로 접어들었다. 루지의 최은주와 박진용은 2010년 호기심 반으로 선발전에 출전했다가 대표가 됐고, 성은령은 4년 전까지 루지가 뭔지도 제대로 몰랐던 선수다. 스켈레톤의 간판스타 윤성빈은 1년 반 전만 해도 평범한 고교생이었다.

한마디로 무모하리만큼 비관적인 현실 속에서 앞만 보고 내달려 맨땅의 기적을 일궜다. 이들의 리얼 스토리는 현대를 살아가는 청춘들에게 전하는 희망가와 같다.

저성장 시대, 세계경제의 장기불황, 늘어만 가는 취업 문턱 앞에 대부분의 청년들은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고 있지 않을 뿐더러 할 수도 없는 불행한 현실에 놓여있다. 한여름 아스팔트 위에서 바퀴 달린 썰매를 타고 훈련해온 선수들은 이 같은 불행을 희망으로 바꿔놓았다.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지만 썰매 하나에 자신의 미래를 올인한 이들은 이미 올림픽 금메달 그 이상의 가치를 창출했다. 김연아가 주지 못할 그들만의 감동 드라마가 벌써 소치 올림픽을 기다리게 한다.

중세의 가을

인문학 산책

김 민 웅
<성공회대 교수>

좁은 골목 사이 저편에는 성인(聖人)들의 조각이 정밀하게 배치된 성당의 지붕이 홀연 나타나고, 거리에는 체리 와인을 팔거나 레스토랑임을 알리는 작은 간판들이 예쁜 명찰처럼 달려있다. 완벽하게 보존된 중세의 유적이 현대와 공생하면서 새로운 미학을 탄생시키고 있는 것이다. 스페인의 대학촌 살라망카에 그토록 많은 이들이 몰려드는 까닭이다.

사실 유럽의 오래된 도시에서는 보기 드물지 않은 풍경이다. 그런데 살라망카가 특히 주목되는 까닭은 여기가 중세 유럽의 지식을 대표하는 산실이었고, 지금도 그 시절의 지적 분위기를 고스란히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한때 순례자들을 위한 수도원은 공공도서관으로 바뀌었다. 그 안에 들어서면 책을 존중하는 시대의 한복판에 와 있다는 황홀한 착각에 사로잡힌다.

흔히 서양의 중세는 '암흑'으로 표현되고, 철저하게 허물어져야 하는 역사의 유물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그런 시대를 살았던 이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고단하고 억압되고 출구가 없는 막막한 삶 자체라는 족보를 얻고 있기조차 하다. 물론 근대 이전의 야만은 결국 희망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역사학자 요한 하위징아가 그의 저작 '중세의 가을'에서 밝혔듯이, 중세란 우리가 따라가기 어려울 정도의 인문학적 교양과 문화적 깊이를 쌓아온 시대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이 익고 익어 숙성됐을 때 르네상스를 거친 유럽은 근대라는 새로운 시간 속으로 진입할 수 있었던 것이다. 6세기에 시작됐던 한 시대는 천년의 무게를 만들어 내고는 마침내 저물었지만 그 열매는 세월이 흐른 만큼의 진액을 지금도 여전히 뿜어내고 있다.

회화사를 봐도 그렇다. 중세의 궁정미술과 성당의 권위 없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보티첼리, 라파엘로 산치오 없고, 이후 마찬가지로 스페인의 엘 그레코 없이 디에고 벨라스케스가 태어나지 못하며, 벨라스케스 없이 고야가 어디 있겠으며 더군다나 파블로 피카소는 황량한 들판에서 태어난 천재가 아니다.

우리의 중세는 현대도시 서울에서 자취를 감췄다. 조선의 역사가 만들어낸 거리와 터는 토막되다시피 했다. 중세의 깊이를 복원할 방법은 없는 것인가? 가령 경복궁과 삼청동 한옥마을이 있는 일대에 조선시대 서고(書庫)처럼 전통 가옥으로 된 도서관 하나 있다면 수도 서울의 역사와 문화의 품격은 사뭇 높아지지 않겠는가? 이걸 상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이 나라의 혼이 근본에서부터 달라질 것이다.

의협, 반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야

기자수첩

황 재 용
<생활경제부 기자>

의료계의 총파업 강행 소식이 신문과 방송의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정부와의 협의체 구성에 대한 여지를 남겼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주말 총파업 출정식을 통해 진료까지 거부하는 극단적인 투쟁 방법을 스스로 선택했다.

하지만 출정식의 결정대로 순조롭게 총파업을 진행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먼저 의협은 국민을 설득해 파업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하고 정부와도 피할 수 없는 싸움을 벌여야 한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의사들이 스스로 파업을 결정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파업 실행 여부는 전체 회원의 투표 결과를 통해 결정되는데 파업에 반대하는 의견도 적지 않고 의료계에는 '진료=생계'라는 공식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출정식에서는 파업에 회의적인 의견을 보이는 의사들도 있었고 피켓을 들고 파업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직접 노환규 의협 회장에게 전달하는 의사들도 종종 보였다. 게다가 원격의료, 의료법인 자법인 허용 등은 종합병원과 개원의에서 확연한 입장 차이를 보이는 부분으로 파업 참여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다. 진료가 직접적인 생계로 이어지는 개원의의 참여도 100%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봉직의나 전공의 등은 파업을 지지해도 회사(병원)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다. 한 전공의는 "수련병원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라 파업 동참이 어려울 것 같다"고 토로했다.

전면 투쟁에 나서며 파업을 결정한 의협이 파업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럭셔리+스포티…오프로더 꿈의 동거

■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스포츠

부품 75% 이상 새로 설계
스틱 형태 커맨드 시프트
차체높이·도강 깊이에서 경쟁차 카이엔보다 월등
지형 맞춰 구동력 조절에
복합연비 10.6㎞/ℓ도 실현

▲한 줄 평가: 이보크보다 화려하고, 올 뉴 레인지로버보다 스포티하다
▲평점: ★★★★☆(별 다섯 개 만점, ☆는 ½)

'럭셔리'와 '스포츠', 이 두 가지 요소를 한데 모으면 어떤 모습일까? 이질적인 이 요소들을 매우 잘 융합시킨 차가 이번에 소개할 레인지로버 스포츠다.

랜드로버는 2011년에 '스포티한 감각의 '이보크'를 출시했고 2013년 2월에 '올 뉴 레인지로버'를 출시한 바 있다. 레인지로버 스포츠는 스포티한 주행 성능에 초점을 맞춘 모델이다. 경쟁 모델로는 포르쉐 카이엔이나 BMW X6를 꼽을 수 있다.

차체 윗부분에 떠 있는 듯한 플로팅 루프는 올 뉴 레인지로버를 떠올리게 한다. 그러나 이 차는 레인지로버와 비교할 때 75% 이상의 부품을 새로 설계한 정도로 구조가 다르다.

차체 높이는 1780㎜로 경쟁차인 카이엔(1705㎜)이나 X6(1690㎜)보다 다소 높지만 상급 모델인 올 뉴 레인지로버(1835㎜)보다는 낮다.

레인지로버보다 심플한 디자인의 대시보드는 운전자의 손이 쉽게 닿도록 기울어져 있다. 대시보드 상단과 하단, 도어의 상단과 하단, 손잡이, 시트, 인테리어 트림 마감재 등의 소재와 색상을 개인의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이 차를 타는 즐거움 중의 하나다.

파워트레인은 V6 3.0ℓ 디젤 엔진과 8단 자동변속기를 조합해 최고 출력 292마력을 낸다. 같은 배기량인 X6 30d(245마력)보다는 높고 X6 40d(306마력)보다는 약간 낮은 수치다. 엔진은 구형보다 한층 부드러워졌고 정숙해졌다. 주행 중 정차하면 자동으로 시동이 꺼지는 기능까지 더해져 불필요한 진동을 느낄 일도 줄였다.

올 뉴 레인지로버와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는 원형 컨트롤러인 '드라이브 셀렉트' 대신 스틱 형태의 커맨드 시프트를 채택했다는 점이다. 전통적인 '손맛'을 느끼며 운전하고픈 이들을 위한 배려다. 덕분에 패들 시프트에 의존하지 않고도 다이내믹한 주행 감각을 느낄 수 있다.

레인지로버 스포츠는 일반도로에서 X6나 카이엔보다 덜 짜릿하지만, 오프로드에서는 동급 최강이다. 카이엔의 경우 최소 차체 높이보다 최대 58㎜ 높일 수 있는데 레인지로버 스포츠는 135㎜까지 가능하다. 물길을 헤쳐나가는 도강(渡江) 깊이는 850㎜로 역시 동급 최강이다.

전자동 지형 반응 시스템 역시 이 차를 빛내주는 기술이다. 마치 전자레인지에서 음식 종류에 맞게 메뉴를 선택하듯이 자갈길이나 진흙길, 모래 등 5가지 종류의 지형에 맞게 레버를 맞추면 구동력이 자동으로 조절된다.

이 차에 표시된 복합연비는 10.6㎞/ℓ이고 도심연비는 9.2㎞/ℓ다. 시가지와 간선도로를 절반씩 섞어 달린 이번 시승에서는 10.0㎞/ℓ의 연비를 나타내며 표시 연비와 거의 일치했다.

레인지로버 스포츠의 매력은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만큼 다양하다. 다채로운 매력을 지닌 차인 만큼 가격은 다소 비싸다. 3.0 디젤은 1억1680만~1억3690만원이고, 최근 추가된 가솔린 슈퍼차저 모델은 1억3090만원이다.

/임의택기자 ferrari@metroseoul.co.kr

볼보 '콘셉트 XC 쿠페' 북미 오토쇼서 첫선

볼보자동차가 13일 개최되는 2014 북미 국제 오토쇼에서 '콘셉트 XC 쿠페(Concept XC Coupe)'를 세계 최초로 공개한다.

향후 볼보자동차 크로스 컨트리의 미래를 가늠해볼 수 있는 콘셉트 XC 쿠페는 차세대 플랫폼 SPA(Scalable Product Architecture) 기반에 새 디자인 총괄 부사장인 토마스 잉엔라트(Thomas Ingenlath)의 디자인이 더해진 모델로, 대자연을 즐기는 스칸디나비안 라이프스타일이 반영된 프리미엄 크로스컨트리(XC)다.

외부 디자인은 2013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서 공개된 콘셉트 C 쿠페(Concept C Coupe)의 디자인을 계승해 더욱 스포티하게 발전시켰다.

긴 보닛과 짧은 오버행, 낮은 루프라인은 날렵한 실루엣을 만들었고, 4인승이지만 2도어를 적용해 역동적인 보디라인을 완성했다. 21인치 알로이 휠과 볼륨감 넘치는 보닛은 크로스 컨트리의 강인함을 표현했다. /김태혁기자

<베스트셀링 준중형, 수입차 중고차 시세> (단위:만원)

제조사	차종	2009년식	2010년식	2011년식	2012년식	2013년식
현대	YF 쏘나타	1,470	1,670	1,610	1,800	2,050
	아반떼MD		1,240	1,200	1,410	1,520
기아	K5		1,530	1,690	2,100	2,000
	K3	-	-	-	1,600	1,620
	포르테	930	1,080	1,120	1,210	1,240
르노삼성	뉴 SM5 신형	-	1,280	1,460	1,750	-
	뉴 SM3	970	1,020	1,080	1,230	1,500
쉐보레	크루즈			1,400	1,500	1,600
벤츠	뉴C-클래스	2,980	3,090	2,570	3,730	4,130
아우디	뉴A4	2,530	2,640	2,100	3,320	2,840
BMW	뉴2시리즈	2,880	2,960	2,920	3,850	4,200

정보제공: 다나와 자동차(auto.danawa.com)

슈퍼카처럼 저돌적인 매력의 렉서스 RC F

렉서스가 오는 13일부터 24일까지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열리는 2014 북미국제오토쇼(North American International Auto Show)에서 렉서스 RC F를 세계 최초로 공개한다고 10일 밝혔다. 프레스 컨퍼런스는 14일 오전 8시45분(현지시간)에 코보센터의 렉서스 전시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RC F에는 렉서스가 개발한 엔진 중 가장 파워풀한 450마력이 넘는 V8 5.0ℓ 엔진이 장착됐다. 강렬한 퍼포먼스를 지원하기 위해 디자인 또한 고속 안전성에 필요한 최적화된 스타일이다.

렉서스 RC F는 지난 11월 도쿄모터쇼에서 공개된 뉴 RC 쿠페를 기반으로 한다. 넓은 휠과 타이어, 액티브한 리어 윙, 에어 스쿱, 쿨링 덕트와 탄소섬유 컴포넌트는 기능적인 아름다움으로 렉서스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전달하고 있다.

렉서스 RC F의 수석 엔지니어 유키히코 야구치(Yukihiko Yaguchi)는 "보닛 안의 독특한 공기 출구와 전면 펜더의 뒷부분은 엔진 냉각과 안정성, 핸들링을 최적화하기 위해 디자인됐으며 공격적인 모습으로 완성됐다"고 설명했다.

외관에서는 렉서스 고유의 스핀들 그릴이 눈에 띈다. 보닛은 RC보다 더 높고, 프런트 범퍼와 펜더 아래 덕트, 에어로 다이내믹 스태빌라이징 핀은 F 모델만의 특징을 만들어냈다.

전면 펜더 뒷부분의 공기 출구는 측면 문을 연장선과 연결돼 L자 모양을 만들고, 4개의 사다리꼴 머플러는 공격적이다. RC F는 렉서스 슈퍼카 LFA의 디자인 요소를 계승했다. 액티브 리어 윙은 정지 시 루프의 라인을 강화하기 위해 80㎞/h에서 펼쳐지고 40㎞/h의 속도에서는 접힌다.

RC F의 계기판, 스티어링 휠, 시트, 장식, 페달은 모두 독특하다. 인스트루먼트 패널은 4가지의 주행 모드에 따라 바뀌는 중앙 다이얼이 중심을 이룬다. 디스플레이의 색과 텍스트의 크기도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RC F는 패들 기어 시프트를 최적의 위치에 배치하고, 렉서스 최초로 횡단면이 타원형인 굵은 그립의 스티어링 휠을 채택했다. 또한 F 문양이 새겨진 헤드레스트를 포함하는 새로운 하이백 시트는 디자인과 기능 면에서 운동복을 연상시킨다. /김태혁기자

비듬 고민 털어내야 탈모 걱정 '털털'

깔끔한 첫인상 방해하는 '비듬' 없애는 습관
약용샴푸 꾸준히 사용하면 원인균 제거 도움

새로운 만남이 잦은 연초에는 외모와 복장에 더 많은 신경을 쓴다. 하지만 의외로 사람의 첫 인상을 좌우하는 것은 패션 센스나 빼어난 용모가 아닌 청결과 위생 상태다. 한 설문조사에서 '다른 사람의 외모 중 가장 거슬리는 부분'을 묻는 질문에 직장인 4명 중 1명은 '비듬, 눈곱 낀 모습' 등을 꼽기도 했다.

멋지게 차려입은 의류 위에 '비듬'이라는 옥에 티가 있으면 첫인상이 좋을 수가 없는 것이다. 한번 생기면 쉽게 없어지지 않는 만성적인 증상인 비듬. 이런 비듬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초기에 적극적인 대처와 함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비듬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약국으로

요즘처럼 춥고 건조한 겨울철은 비듬이 기승을 부리는 시기다. 두피 내 곰팡이 증식으로 비듬이 생기는데 건조하고 차가운 날씨가 두피 건강의 적이 되기 때문이다. 또 날씨가 건조해 두피가 메마르면 그만큼 비듬 발생량도 늘어나고 이를 방치하면 모발 건강을 악화시켜 탈모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비듬을 없애려면 원인이 되는 곰팡이를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비듬 가루 및 두피 가려움 등 대표적인 비듬 증상이 나타나면 '니조랄'(한국존슨앤드존슨)과 같은 케토코나졸 성분의 약용 샴푸(비듬 전문 치료제)를 사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일반 샴푸로는 비듬 원인균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어서다.

특히 약국에서만 이런 약용 샴푸를 구입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지루성 피부염을 동반하거나 증상이 심하면 피부과를 방문해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샴푸는 하루 한 번이 적당

비듬이 많으면 머리를 자주 감아봐야 소용이 없다. 특히 겨울철 생기기 쉬운 건성 비듬의 경우 머리를 자주 감으면 두피의 수분 손실을 촉진시켜 오히려 비듬 증상을 악화시킨다.

더욱이 일반 샴푸로 머리를 감는 것은 비듬 치료에 큰 효과가 없다. 비듬이 있다면 약간 따뜻한 물로 모발을 충분히 적신 다음 약용 샴푸의 거품을 충분히 만들어 두피를 마사지하듯 가볍게 문질러주는 것이 좋다.

또 비듬은 단시간에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증상이 아니라 꾸준하게 치료하면서 관리해야 하는 증상이다. 니조랄의 경우 주성분이 모발의 단백질과 결합해 일정 기간 동안 비듬 원인균을 억제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두 번만 사용해도 효과를 볼 수 있다. 게다가 약용 샴푸를 한 달에 4회 사용한다면 비듬 예방 효과를 볼 수 있다.

◆겨울철엔 두피 보습도 중요

낮 동안 두피와 모발에 묻은 오염 물질이 비듬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샴푸는 아침보다 저녁에 하는 것이 좋다. 머리를 감은 뒤에는 수건으로 가볍게 눌러 물기를 제거해야 하며 두피와 머리카락을 잘 말리는 것만큼 두피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두피가 매우 건조하다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수분팩을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되며 헤어 스프레이나 왁스 등 헤어 스타일링 제품은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비듬은 지나친 스트레스나 다이어트에 의해서도 나타날 수 있으므로 평소 스트레스 조절과 영양 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황재용기자

'천송이 화장품' 인기 활짝

드라마 '별그대' 전지현 제품 간접홍보 효과 대박

뷰티 업계가 14년 만에 안방극장에 컴백한 배우 전지현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12월 인기에 따르면 SBS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가 인기를 끌면서 주인공 천송이 역할의 전지현이 사용한 화장품이 덩달아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최근 전지현이 방송으로 이야기하면서도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바르는 장면(큰 사진)이 방영된 직후 관련 제품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전지현 립스틱'이라 불리고 있는 이 제품은 아모레퍼시픽의 '프리미어 렘버카 롱 루즈 로즈 갤러리 컬러'(11번)로 발색력이 뛰어나고 천연 유래 성분을 함유해 부드럽게 발리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전지현이 스킨케어 단계에 사용한 멀티밤과 미스트는 한율의 자운단 보습 진정밤과 고결수 에센스 워터로 알려졌다. 한율 관계자는 "두 제품 모두 진한 화장보다 깨끗한 피부 표현에 신경 쓰는 전지현이 즐겨 사용하는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이보다 앞서 전지현의 전속 메이크업 아티스트 손대식씨가 극중에서 '입생로랑 베르니 아 레브르 틴트'를 사용했다고 밝히며 해당 제품이 일시 품절되기도 했다.

/이지원기자

명품·브랜드보다 스타일 뻐기는 멋쟁이

올해 패션 키워드 '스웨그'

경기 침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패션업계에서 2014년을 주도할 키워드로 '스웨그(swag)'가 떠올랐다. 스웨그는 서울대 소비트렌드분석센터가 '트렌드 코리아 2014'에서 전망한 국내 10대 소비 트렌드에 선정되기도 했다.

힙합 뮤지션이 으스대는 기분을 표시할 때 주로 사용하는 용어인 스웨그는 한마디로 '멋지다' '폼나다'라는 의미인데 패션에서는 자신만의 '스타일'을 표현한다는 의미로 쓰인다. 명품을 패러디한 페이크(fake) 상품, 브랜드의 거품이 빠진 로고리스 백, 싸고 빠른 전환이 특징인 SPA 브랜드의 인기는 자신의 개성을 나타내는 스웨그의 연장선으로 여겨지고 있다.

◆명품보다 튀 나는 페이크 패션

스웨그 패션의 대표는 '페이크 백'이다. 홍콩 패션 브랜드 전지백에서 시작된 이 페이크백은 고급 제품의 이미지를 차용하되 반전을 통해 소비자들의 유머를 유발하는 데 성공했다.

이와 함께 에르메스는 '호미스'로, 샤넬은 '채널', 꼼데가르송은 '꼼데 퍽다운', 프라다는 '프라우드' 등으로 패러디 되며 '진짜'보다 '가짜'가 더 강세다. 페이크 패션은 의도된 모방이라는 점에서 명품을 복제한 '짝퉁'과는 구별된다. 브라이언 리히텐버그, 스테레오 바이널즈 컬렉션 등 명품 패러디 브랜드들은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패러디 제품을 선보이고 있는 중이다.

또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는 성향은 똑같은 명품백 대신 로고를 없앤 '로고리스 백'의 인기를 불러왔다. 한 백화점에 따르면 올해 명품 잡화의 평균 신장률이 6.2%인 반면, 로고리스 백으로 주목을 받은 핸드백은 전년 대비 15% 매출 신장을 기록했다. 로고리스 백을 대표하는 브랜드로는 페르쉐, 지니킴 등이 있다.

더불어 값싸고 상품 교체 주기가 빠른 SPA 브랜드 역시 스웨그를 대표하는 브랜드로 그 인기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유니클로와 자라, H&M이 올 매출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지원기자 pjw@metroseoul.co.kr

SPAO ZARA UNIQLO LifeWear H&M

첫줄부터 명품 '에르메스'와 '프라다'를 패러디한 페이크 패션 제품, SPA 브랜드, 로고리스 백

엄홍길휴먼재단 '무료 인공관절' 후원

60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 및 차상위계층 등 소외노인 대상 생활고 탓 방치한 무릎 퇴행성관절염 수술비용 지원 캠페인

세월 앞에 장사 없다'란 말이 있듯이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 몸은 점점 노화된다. 특히 우리 신체 중 관절은 노화로 인한 퇴행성 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다.

그중 대표적인 질환이 바로 무릎 퇴행성관절염이다. 무릎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관절로 퇴행성관절염을 앓고 있는 환자들은 기온이 낮아지는 지금이 특히 힘든 시기다. 요즘처럼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고 일교차가 심해지는 겨울에는 관절이 경직되고 혈관이 수축되면서 통증이 더욱 심해지기 때문이다.

◆무릎 통증 계속된다면 퇴행성관절염 의심해야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관절 사이에는 연골이 존재한다. 연골이란 뼈 마디 끝에 위치해 뼈와 뼈 사이의 마찰을 방지하고 충격이나 압박을 완충하는 역할을 한다. 퇴행성관절염은 이런 연골이 닳아 통증이 발생하는 질환으로 무릎 퇴행성관절염은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중 약 80% 이상이 앓고 있을 정도로 흔한 질환이다. 세월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질환인 것이다.

사실 퇴행성관절염의 경우에는 예방이 어렵다. 특히 무릎은 일상생활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관절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연골의 마모가 빠르게 진행된다. 무릎 통증을 느끼게 된 이후 움직임이 불편해지고 평소보다 적게 움직이게 된다면, 혹은 밤에 잠을 잘 때나 추운 날씨에 통증이 심해진다면 퇴행성관절염을 의심해봐야 한다.

◆인공관절 수술, 일상생활 가능하지만 비용 부담 커

무릎 퇴행성관절염은 상태에 따라 초·중·말기로 구분된다. 초기나 중기의 경우는 연골 손상 정도가 심하지 않아 연골 재생 등의 보존적 치료가 가능하다. 하지만 연골이 거의 남아있지 않아 뼈와 뼈가 맞닿는 말기 상태가 되면 약물이나 주사요법, 물리치료 등으로는 효과를 볼 수 없고 '인공관절 수술'만이 유일한 치료법이 될 수 있다.

인공관절 수술은 무릎 연골과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는 인공 구조물을 무릎 내에 이식하는 수술법이다. 인공관절은 운동 각도를 늘린 고굴곡 인공관절, 여성의 골격에 맞춘 여성형 인공관절, 개인 골격에 정확히 맞춘 맞춤형 인공관절 등으로 나뉘는데 수술 후에는 꾸준한 재활을 통해 일상생활과 등산 등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될 수 있다.

하지만 수술을 받으면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인데도 수술받지 못해 질환을 방치하는 사람들이 많다. 바로 수술비 부담 때문이다.

인공관절 수술을 한쪽 무릎만 받을 경우 환자의 부담금은 약 250만~300만원 정도이며 양쪽 무릎 모두 시행할 경우에는 500만원 정도가 든다. 게다가 수술 전후의 입원비와 검사비 등이 추가로 부담된다. 수술을 위해서는 대략 600만~700만원 가량의 비용이 소요되는 셈이니 만약 실손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면 그 비용은 2배로 늘어난다.

◆엄홍길휴먼재단, 저소득층 위한 무료 인공관절 수술 캠페인 전개

이에 산악인 엄홍길(사진) 대장이 수술비 부담으로 수술을 미루고 있는 저소득층 환자들을 위해 본격적인 후원에 나섰다. 엄 대장이 설립한 '엄홍길휴먼재단'이 저소득층 환자를 위해 '무료 인공관절 수술 캠페인'을 진행하는 것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무릎 퇴행성관절염으로 고생하고 있는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후원 대상이며 엄홍길휴먼재단 캠페인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어려운 사연과 본인의 증상 등을 접수하면 된다.

엄홍길휴먼재단 엄홍길 상임이사는 "무릎 통증은 일상생활을 불편하게 한다. 치료비가 부담돼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웠다"며 "지속적인 캠페인 활동으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캠페인이 모든 분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황재용기자 hwanj384@metroseoul.co.kr

◆치료 후원 신청 방법

이번 행사는 인터넷과 전화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 이외의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다.

– 전화: 02)2272-6849(엄홍길휴먼재단 후원 캠페인 담당자)

– 인터넷: 엄홍길휴먼재단 홈페이지(www.uhf.or.kr) 접속 후 후원 캠페인 코너를 통해 신청

청소년기 '거북목 증후군' 성장 방해

성장기 아이들은 특히 유연해 곧고 바른 자세가 필요한데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을 사용하면서 불안한 자세를 오래 유지하면 일자목이라 불리는 '거북목 증후군'은 물론 목디스크와 같은 척추 질환과 척추 변형을 가져오게 된다.

거북목 증후군의 주된 증상은 목이 뻣뻣해지며 어깨와 등에서도 통증이 생기는 것이다. 눈도 쉽게 피로해지고 손이 저린 증상이 지속되도 거북목 증후군을 의심해야 한다.

신정연 청담튼튼병원 키우리성장클리닉 원장은 "잘못된 생활 습관과 잦은 컴퓨터 사용 등으로 인한 거북목 아이들이 늘고 있다. 거북목은 성장에도 치명적일 수 있는 만큼 평소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거북목 증상이 보인다면 바로 병원을 찾아 교정을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황재용기자

'이대 슈바이처' 22명 베트남으로

2014 해외의료 봉사단 발대

이화의대 의료원이 지난 9일 2014 해외의료 봉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봉사단은 베트남과 우즈베키스탄 2개국에서 의료 봉사활동을 진행하며 단원들은 각 지역에서의 봉사활동을 통해 이화의 설립 정신인 '섬김과 나눔'을 실천할 예정이다.

지난 11일 베트남으로 떠난 봉사단은 전문식 치과 교수를 단장으로 총 22명으로 구성됐으며 이들은 오는 18일까지 베트남 하노이 및 선라 지역에서 무료 건강검진과 진료 및 특강 등의 활동을 전개한다.

또 성구원 응급의학과 교수를 단장으로 하는 우즈베키스탄 봉사단은 오는 19일부터 27일까지 8박9일 간의 일정으로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이화의료원 해외의료 봉사단은 지난 1989년 네팔에서의 의료 봉사활동을 시작으로 매년 다양한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건보료 1조7000억 축내는 담배

기고

황인한 회장 <대한노인회서울연합회>

흡연 인한 재정낭비 줄여 노인 틀니·치매 치료 등 고령 복지예산 투입해야

지난 1일 담배 폐해와 관련된 충격적인 사실이 언론에 보도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선하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한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한 흡연의 건강 영향 분석 및 의료비 부담' 연구 결과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손실이 상당히 크다는 것이다.

아시아 최대 규모인 130만 명을 19년 동안 추적 관찰한 연구인데 연구 결과 흡연자의 암 발생 위험도가 비흡연자에 비해 최대 6.5배 높았으며 특히 흡연과 관련된 진료비 지출이 연간 1조70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규모는 국민 전체가 부담하는 한 달 건강보험료와 맞먹는 수준으로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 확대 재원이 5년간 약 9조원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흡연 손실액 보전이 건강보험에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우리나라 흡연자들은 담배 한 갑을 살 때마다 354원의 건강증진 부담금을 내고 있다. 하지만 연간 1조70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고 천문학적인 사회·경제적인 비용을 유발하고 있는 담배회사는 단 1원의 부담금도 내지 않고 있다.

현재 건보공단에서 담배로 인한 손실액을 보전하기 위해 담배회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흡연으로 인한 재정 손실액을 고령화로 인해 발생하는 노인 틀니, 노인 치매 등에 투입해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건강보험 제도를 확립해야 한다.

노출 없어도 섹시 '6명의 김완선'

'B.B.B'로 상큼 벗고 성숙 입은

달샤벳

항상 상큼함을 간직할 것 같았던 그들이 달라졌다. 벌써 7번째 미니앨범 'B.B.B'로 돌아온 걸그룹 달샤벳이다.

데뷔 후 상큼한 매력으로 '군통령'으로 자리매김한 이들이 한층 성숙한 여인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기존 걸그룹들의 섹시 콘셉트와 차별화를 뒀다. 직접적인 노출은 최소화하고 몸에 붙는 의상과 화려해진 퍼포먼스를 선택했다.

◆ '제2의 김완선' 꿈꾸다

앨범 타이틀곡 'B.B.B'는 히트 작곡가 신사동호랭이의 곡이다. 흥을 돋우는 복고풍의 신스팝 사운드와 중독성 강한 후렴구가 특징이다.

무대 위 이들의 모습에서는 1990년대 초반 독특한 음색과 퍼포먼스, 섹시한 매력으로 가요계를 흔들었던 김완선의 모습이 잘 묻어났다.

리더 세리는 "신사동호랭이가 'B.B.B'를 주면서 여섯 명의 김완선이 되면 좋겠다고 말해 당시 김완선 선배님의 자료 화면을 보면서 창법을 열심히 연구했다"며 "김완선 선배님의 창법은 노래를 부르는 것 같지 않으면서도 섹시한 톤을 지니고 있어 이를 따라 하고자 호흡을 많이 빼서 불렀다"고 전했다.

◆ 땀으로 완성된 섹시함

독특한 창법과 눈빛, 화려한 퍼포먼스로 섹시함을 표현하기 위해 이들은 남다른 노력을 했다. 특히 달샤벳 멤버들은 몸에 붙는 보디슈트를 입어 노출 없이도 충분히 자극적인 느낌을 표현했다.

지율은 "이번 앨범을 준비하면서 식단 조절을 통한 다이어트를 하지 않았다"며 "몸매가 드러나는 의상이기 때문에 평소 하지 않았던 근력 운동을 하루 평균 2시간가량 했다"고 말했다.

신곡 안무와 관련해 가은은 "우리만의 차별점은 섹시와 카리스마 모두인 것 같다"며 "섹시보다는 카리스마에 중점을 두려고 무대에서의 안무 동선에 집중했다. 은근한 섹시미를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희는 "퍼포먼스나 군무에 신경을 많이 썼다. 꽤 쓰는 동작이 많아서 몸 근육이 생기는 것도 같더라"며 "'속삭해춤', '너춤', '힙업춤' 등 안무 포인트도 다양하게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 데뷔 4년차 본격 해외 활동

2011년 '수파두파디바'로 가요계에 등장해 '있기없기', '미스터뱅뱅', '내 다리를 봐' 등을 히트시키며 올해 데뷔 4년차가 됐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조급하기보다 매번 새로운 모습으로 자신들의 색깔을 완성해 가고 있다. 이들의 목표 또한 남달랐다.

아영은 "쇼케이스를 앞두고 일본에서 단독 콘서트를 진행했는데 우리 노래를 함께 불러줬다. 그동안 국내 활동에 집중했는데 앞으로 해외에서도 많은 공연을 하는 것이 목표다"고 말했다.

이어 수빈은 "변함없이 지금처럼 열심히 하면 많은 분들이 알아주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든다. 올해는 팬들과 더욱 소통할 수 있는 이벤트를 준비하고 싶다"고 각오를 다졌다.

뿐만 아니라 수빈은 음악 활동 이외의 다양한 활동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뒀다. 최근 MBC 라디오스타에 출연해 남다른 예능감을 선보인 수빈은 "기회가 있다면 연기나 예능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전했다.

/정범준기자 jyw@metroseoul.co.kr

/디자인 박은지

DAL SHABET

보디 슈트에 화려한 안무
사운드는 복고풍 신스팝
완선선배 창법 따라하려
호흡 많이 빼서 불렀어요
”

tvN 월화드라마

로맨스가 필요해 3

너를 만나,
다시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오늘 밤 9시 40분 tvN 첫방송 / 매주 월,화 밤 9시 40분 tvN 방송

김소연 | 성준 | 남궁민 | 왕지원 | tvN | JSpictures

독특한 소재·찬란한 배우 연기 통했다

'별그대' 인기급등 분석

톱스타·외계인 사랑 다뤄 전지현 코믹 열연도 일품 로코+판타지 재미 더해

김수현(사진 오른쪽)·전지현(왼쪽) 주연의 SBS 수목극 '별에서 온 그대'가 인기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이 드라마는 방송 4회 만에 시청률 20%를 돌파한 데 이어 8회까지 방송된 현재 25% 가까이 시청률이 치솟는 등 빠른 속도로 매회 자체 최고 기록을 경신 중이다. 최근 강경옥 작가의 인기 만화 '설희'를 표절했다는 의혹이 일었지만 영향을 받지 않는 분위기다.

드라마의 인기는 OST가 음원 차트 상위권을 휩쓸며 가요계에도 번졌다. 12일 기준으로 지니·올레 뮤직·엠넷 등 각종 음원 사이트에 케이윌의 '별처럼'과 린의 '마이 데스티니'가 꾸준히 톱 5에 머물고 있다.

주연배우들이 극중 선보인 패션이나 소품도 불티나게 팔린다. 백치미 넘치는 도도한 톱스타 천송이를 연기하는 전지현이 선보이는 것은 의상부터 헤어스타일, 구두, 메이크업까지 모든 것이 화제가 되고 있다. 400년 전 지구로 온 외계남 도민준을 연기하는 김수현이 걸치고 나온 슈트와 백팩도 완판 행진이다.

가요계와 패션계뿐 아니라 출판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김수현이 극중 틈틈이 꺼내 읽는 동화책 '에드워드 툴레인의 신기한 여행'은 2009년 출간됐을 당시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드라마에 비춰진 후부터 날개 돋친 듯 팔려 최근 3만 부 이상 판매됐다.

인기 돌풍은 해외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판권이 중국에 역대 최다 최고가로 팔린 데 이어 4회까지 공개됐을 당시 현지에서 방송 다운로드가 1억 뷰를 넘어서는 대기록을 세웠다.

 # 독특한 스토리와 주연배우 열연

이 같은 인기의 배경은 흥미롭고 독특한 스토리와 스타 작가·연기력을 겸비한 주연배우의 힘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 작품은 시청자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며 시청률 40%를 넘은 드라마 '넝쿨째 굴러온 당신'의 박지은 작가가 집필을 맡고 '해를 품은 달'로 대세남으로 떠오른 김수현과 14년 만에 안방극장에 복귀하는 전지현이 출연한다는 점에서 방영 전부터 화제를 모았다.

방영 후에는 기대에 걸맞게 톱스타와 외계인의 사랑이라는 이색적인 소재를 흥미롭게 그려나가고 있다. 로맨틱 코미디 장르를 표방하면서도 도민준이 시간을 멈추는 등 초능력을 지닌 존재로 묘사해 판타지에서 오는 재미를 더했고, 안물들의 뒷이야기를 전하는 참신한 에필로그를 삽입해 몰입도를 더욱 높였다.

김수현은 특유의 묵직한 목소리와 안정적인 연기로 외계남을 신비하고 매력적으로 그려 만준앓이를 일으키고 있다. 전지현은 한껏 망가지면서도 아픔을 지닌 톱스타 역할을 물오른 연기력으로 선보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전지현은 물론 현재 중국에서 최고의 한류스타로 사랑받고 있는 박해진까지 천송이를 사랑하는 순정남 이휘경 역으로 가세해 극의 인기에 불을 지폈다.

이 밖에도 시간을 멈추거나 과거와 현재를 자연스럽게 오가는 등 영화 같은 영상미를 선보이는 연출력까지 모자람이 없다는 평이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인기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진영기자 pjy0427@metroseoul.co.kr

"정준일, 기대되고 두려운 존재"

그의 컴백 앞두고 대세 뮤지션 칭찬 이어져

음악성과 예능감을 겸비한 대세 뮤지션들이 실력파 싱어송라이터 정준일(사진)의 컴백에 한목소리로 기대감을 나타냈다.

16일 출시되는 정준일의 정규 2집 '보고싶었어요' 티저 영상에는 유희열·윤종신·조정치 등이 출연해 정준일의 음악에 대한 견해와 재치 넘치는 코멘트를 담아 눈길을 끈다. 음악 하이라이트와 영상으로 구성되는 일반적인 티저 영상과 달리 동료 뮤지션들의 인터뷰만으로 제작돼 음악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높인다.

유희열은 이 영상에서 "제일 기대되고 두렵기도 한 존재"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들 외에 모델 겸 가수 장윤주, 모던록 밴드 디어클라우드, 엔지니어 강효민, 재즈피아니스트 송영주, 베이시스트 서영도, KBS 라디오 윤성현 프로듀서 등의 인터뷰도 티저 영상에 실렸다.

이번 앨범에는 국내 최정상급 세션인 서영도·홍준호·신석철 외에도 재즈피아니스트 송영주, 20인조 오케스트라가 참여했다. 또 뱃 머스니·류이치 사카모토·파이잘 브레커 등 세계적인 뮤지션들과 작업한 강효민 엔지니어가 함께해 화제를 모은다.

3인조 밴드 메이트의 보컬리스트 겸 건반 연주자 출신으로 2011년 11월 솔로 1집을 발표한 정준일은 군 제대 후 컴백작으로 2년 2개월 만에 새 정규앨범을 출시한다. 앨범에는 타이틀곡 '고백'을 비롯해 자신이 직접 작사·작곡한 10곡의 음악이 실린다. /유순호기자

비, 월드뮤직어워드 5개 부문 후보에

가수 비(사진)가 월드뮤직어워드(WMA) 5개 부문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12일 WMA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비는 신곡 '30섹시'로 총 3개 시상 부문 중 '월드 베스트 송' '월드 베스트 뮤직비디오' '월드 베스트 피메일 아티스트' '월드 베스트 라이브 액트' '월드 베스트 엔터테이너' 등 총 5개 부문에 노미네이트됐다.

소속사 큐브DC는 "4년 만에 컴백한 비가 1주일 만에 세계적인 음악 축제에 후보로 오른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최근 정규 6집을 발표하고 컴백과 동시에 1위에 오른 비에 대한 해외의 관심을 입증한 셈이다"고 평가했다.

아시아는 물론 전 세계를 무대로 전방위적인 활동을 펼쳐온 비는 이번 음반 발표와 함께 할리우드 영화 '더 프린스'를 촬영하는 등 분주하게 해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1989년 시작된 월드뮤직어워드는 별도의 심사위원은 없으며 음반 판매량과 팬 투표로 수상자가 가려지는 팬 중심의 시상식이다.

'월드 베스트 송' 에는 비 외에도 트러블메이커·다비치·박지윤이 후보로 올랐다. '월드 베스트 뮤직비디오'에는 싸이와 다비치·2NE1이 이름을 올렸고 '월드 베스트 피메일 아티스트' 부문에는 현아와 아이유가 후보로 올랐다.

대세 아이돌 엑소를 비롯해 빅뱅·2PM·2NE1은 '월드 베스트 그룹' 후보에 올랐다.

/유순호기자

'히든싱어 2' 시청률 6.1% 역대 최고

JTBC '히든싱어 2' 왕중왕전 편(사진)이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했다.

시청률 집계기관 TNmS에 따르면 11일 방영된 왕중왕전 첫 회의 전국 유료 매체 가입 가구 기준 시청률은 6.1%를 기록했다. 이는 '히든싱어 2'의 첫 회부터 지금까지 가장 높은 시청률이다.

TNmS 측은 "시즌 1에서 가장 시청률이 높았던 왕중왕전 마지막 회(6월 22일) 방송의 시청률 5.2%보다 0.9%포인트 높다. 이에 따라 시즌 2의 왕중왕전 마지막 회 시청률은 시즌 1보다 더 높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지상파 채널과 비교할 수 있는 전국 가구(유료 매체 가입+비가입) 시청률은 5.8%로, 동시간대 방송한 KBS2 '리얼체험 프로젝트 인간의 조건'(5.7%)보다는 0.1%포인트 높았다. MBC '세상을 바꾸는 퀴즈 세바퀴'(6.0%), SBS '그것이 알고 싶다'(7.5%)와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날 방송에서는 13명의 모창 능력자들이 출연해 상금 2000만원을 두고 대결을 펼쳤다. 그 결과 임창정의 모창 능력자로 출연한 조현민이 임창정의 '소주 한 잔'을 불러 김범수·신승훈·아이유의 모창 가수를 제치고 A조 우승을 차지했다. /박준영기자

성룡 액션이 돌아온다

'폴리스 스토리' 29일 개봉

'망점의 아이콘'으로 통하는 성룡이 올해 설 연휴에는 신작을 들고 돌아온다.

성룡의 액션 시리즈 '폴리스 스토리'의 완결편 '폴리스 스토리 2014'(사진)가 이달 29일 국내 개봉을 확정 짓고 포스터를 공개했다. 포스터는 긴장한 표정으로 적을 향해 비장하게 총을 겨누고 있는 성룡의 모습으로 시선을 끈다.

이 영화는 강력계 형사 종 반장(성룡)이 하나뿐인 딸(경정)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적이 언질이 돼 범죄를 소탕하는 과정을 그린다. 지난달 24일 중국에 먼저 개봉해 첫날 1160만 달러(약 123억760만원)의 흥행 수익을 올려 성룡 영화 사상 최고의 오프닝 스코어를 기록했다. 이어 개봉 2주차인 5일까지 7231만 달러의 누적 흥행 수익을 거뒀다.

'차이니즈 조디악' '취권' '용형호제' '러시 아워' 등에서 리얼 액션 연기로 전 세계를 열광시킨 성룡은 이번에 한층 더 진화한 명품 액션을 선보인다.

한편 '전국: 천하영웅의 시대'에서 뛰어난 미모와 연기력으로 중국 와라이징 스타로 떠오른 여배우 징첨이 성룡의 극중 하나뿐인 딸 미오 역을 맡아 역대 '폴리스 스토리' 시리즈를 빛낸 장만옥과 양채니의 뒤를 잇는다. /박진한기자

'스무살 할매' 웃음·감동이

film review
박지원 기자 pd0427@metroseoul.co.kr

뻔한 소재지만 '깊은 울림'… 욕설 연기 눈길

■수상한 그녀

사람들은 "당신은 언제로 돌아가고 싶습니까"라는 질문을 듣는다면 어떤 대답을 내놓을까. 저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이미 많은 이들이 청춘의 싱그러움과 무한한 가능성이 있었던 스무 살 무렵을 꼽지 않을까 싶다.

22일 개봉될 영화 '수상한 그녀'는 이들 자랑이 유일한 낙인 욕쟁이 칠순 할머니 오말순(나문희·사진 왼쪽)이 꽃처럼 예뻤던 스무 살로 돌아가 빛나는 전성기를 누린다는 이야기를 그린다.

가족들이 자신을 요양원으로 보내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돼 실의에 빠진 오말순은 오묘한 불빛에 이끌려 '청춘 사진관'에서 영정사진을 찍고 나서 스무 살 시절의 모습으로 변한다. 이후 오두리(심은경·오른쪽)로 이름을 바꾼 뒤 이웃집 박씨(박인환), 방송국 준남 PD 한승우(이진욱) 손자인 반지하(진영)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이루 못 꿈인 가수로 데뷔한다.

과거로 돌아간다는 설정은 최근 드라마에서 앳따라 등장해 익숙한 소재다. 그러나 이 영화는 뻔한 소재라도 유쾌하고 감동적으로 잘 포장해 충분한 재미를 준다. 새파랗게 어려 보이는 오두리가 구수한 전라도 사투리로 찰진 욕을 구사하며 로맨스를 엮어가는 전개가 웃음을 자아낸다.

유쾌하게 웃을 수 있는 영화지만 가볍지 않은 메시지도 녹아있다. 2011년 개봉된 영화 '도가니'로 사회에 반향을 일으킨 황동혁 감독이 이번에는 한국 사회에 만연한 노인 경시 풍조를 꼬집는다.

그런데 이 같은 메시지를 비판적으로 담거나 자식을 위한 희생만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오두리라는 존재를 통해 할머니다 할아버지도 꿈을 꾸던 젊은 날이 있었음을 말해주며 세대를 따뜻하게 하나로 묶는 힘을 보여준다.

오두리로 분한 심은경의 매력도 빛을 발한다. 영화 '써니' '광해, 왕이 된 남자' 로 차세대 스타를 예고했던 그는 성인이 된 후 첫 작품인 이번 영화에서 '제2의 문근영'으로 성장할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준다.

마음은 할머니인 오두리를 천연덕스럽게 연기하며 약 두 시간의 러닝타임을 이끌고 나간다. 비록 코믹 연기가 과장된 감이 없지 않지만 촌스러운 옷을 입고서도 깜찍하게 윙크하는 모습은 매우 사랑스럽다. '나성에 가면' 등 1930~90년대 추억의 가요들을 재해석한 곡들을 직접 부르며 가수 못지않은 노래 실력까지 뽐낸다.

연기파 중견배우 나문희·박인환의 연기는 말할 나위 없고, '대세남' 김수현까지 깜짝 등장해 마지막까지 큰 웃음을 선사한다.

10대부터 70대까지 삼대가 다 함께 웃으면서 볼 수 있어 설날 개봉작으로 적당하다. 15세 관람가.

불법파일 유출 악재 만난 '변호인'

최단 1000만 돌파 눈앞

영화 '변호인'(사진)이 1000만 관객 돌파를 앞두고 불법 파일 유출이라는 악재를 만났다.

'변호인'의 투자·배급사 NEW는 11일 "영상이 온라인에 불법 유출됐다. 극장에서 상영 중인 영화를 캠코더로 촬영한 이른바 '직캠' 영상이 유포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를 발견한 많은 관객과 네티즌이 자발적으로 제보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비상식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 우리와 같은 마음으로 분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문 조사기관에 의뢰해 불법 게시물이 올라온 사이트에 대한 게시물 삭제 및 경고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사이버 수사 의뢰 및 저작권보호센터 조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최초 유포자와 불법 게시자 등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영화 '변호인'의 출연진과 감독이 무대인사 중 관객들과 함께 단체 촬영을 하고 있다.

지난달 19일 개봉한 '변호인'은 11일까지 누적 관객 수 895만2645명을 기록해 역대 최단기간 1000만 관객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유순호기자

휴스턴 딸, 의붓 오빠와 결국 결혼

할리우드에 한국 '연방극장'에서나 보던 '막장 드라마'가 펼쳐졌다.

고 휘트니 휴스턴과 바비 브라운의 딸 바비 크리스티나(사진 오른쪽)와 의붓아들 닉 고든(왼쪽)이 세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부의 연을 맺었다.

미국 연예매체 TMZ닷컴은 11일(현지시간) "크리스티나와 고든이 10일 애틀랜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고 밝혔다. 이 매체에 따르면 크리스티나는 "외할머니로부터 결혼 허락을 받았다"고 말했다.

고든은 휴스턴이 생전 입양을 통해 얻은 양아들이다. 고든과 크리스티나는 함께 성장했으나 2012년 휴스턴의 사망 직후 데이트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그해 약혼한 사실까지 알려져 가족과 대중에게 충격을 안겼다. /박선완기자

앤더슨, 세번째 남편 살로몬과 재결합

원조 글래머 스타 파멜라 앤더슨(사진)이 전남편 릭 살로몬과 재결합했다.

12일(현지시간) 미국 연예매체 피플에 따르면 앤더슨은 최근 살로몬과 재혼했다. 그 증거로 손에 큰 반지도 착용했다. 앤더슨은 "우리 가족은 지금 매우 행복하다. 중요한 건 그것뿐"이라고 재결합을 인정했다.

그는 2007년 살로몬을 세 번째 남편으로 맞았으나 결혼 60일 만에 이혼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두 사람이 만나는 모습이 포착되며 재결합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선완기자

사람을 포함한 동물은 생리적으로 겨울을 대비해 체내에 에너지를 비축합니다. 또 겨울에는 활동량이 줄어 살이 찌기 쉽습니다. 적절한 활동량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좋은 말의 압박

함경선의 모놀로그

세상에는 하고 싶어도 하면 각박하고 나쁜 사람 될까봐 못 하는 이야기들이 있다. 자, 오늘은 그 이야기를 용기 내 해볼까 한다. 나는 지하철 스크린도어의 시가 싫다. 시각적으로도 거슬리고 읽어도 감흥이 없다. 시는 한 개인의 가장 깊은 내면의 생각들을 담은 것이기에 제3자가 보기에 이해 안 되거나 '이게 대체 뭘까?' 싶은 건 자연스러울 수도 있다. 괴로운 건 서울시가 나름대로 시민들의 정서 함양을 위해 아이디어를 짜서 일반 공모전도 지르며 등단 시인들과 면의를 통해 이루어낸 과업일 터인데 그런 좋은 일을 가볍게 여기지 못하는 나의 각박한 마음이 안겨주는 죄의식 때문이다.

물론 역마다 시가 다르니 어쩌다 가슴을 울리는 글귀를 만날 수도 있다. 그렇더라도 나는 이 문화 정책에 반대할 것 같다. 시의 천차만별 수준이 문제가 돼 중간에 수준 고르기 등의 개선책을 내기도 했다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얼마나 좋은 시를 읽게 하느냐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나는 제아무리 좋은 글이라 하더라도 그 좋은 것을 취하는 적절한 장소가 따로 있다고 생각한다. 그 적절한 장소란 바로 내가 취하고자 하는 장소를 선택할 수 있는 곳이다. 그곳들은 분명 모든 이들이 이용하는 열린 공공장소는 아닌 것 같다.

헌데 한국에선 역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좋은 글을 뿌리는 것을 참 좋아한다. 전봇대 사이에 걸린 '이런저런 좋은 일을 하자' 플래카드, 화장실 소변대 위의 '참 좋은 생각' 스티커를 하물며 길 잃은 양들에게 좋은 말씀 전하고자 거리에서 고성방가하는 종교 맹신자들. '난 이렇게 당신에게 좋은 이야기를 거저 해주려는데 왜 그게 문제가 되지?'라는 우월한 윤리 의식을 두르고 말하는 이는 공공 선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그저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이다. 그것이 좋은지 아닌지, 내 정서 함양에 보탬이 되는지 시각공해인지 판단하는 것은 개인이고, 개인의 선택이 차단된 노출은 억지로 읽히는 프로파간다가 아닐까. 지하철 스크린도어에 시가 붙어있다고 시가 많이 읽히는 도시, 문화적으로 성숙한 도시는 아니다. /칼럼니스트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 3칸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9	6	1	8				
	2	4	9		5			
			4	2		7		
4					8		5	
	1				9	4	3	
8	6					9	7	
	4	1	2			6	8	
		2		6				

2								6
			3		9			
5	7			8			4	2
				6				
3	6						7	4
	8		7		5		6	
			1		8			
	1	4		3		6	9	
	2						3	

스도쿠 정답

[illegible]

문제 제공 : 썬뉴스
슈퍼스도쿠 마스터 (개발러 미디어 리미티드 제공)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흥분 잘하는 아내와 이혼 고민 어쩔수 없는 사주 참고 살아야

붉은미소로 남자 77년 6월 16일 양력 오전 2시5분 여자 78년 8월 4일

Q 아내가 한국에 온지 1년이 넘었는데 감정 기복이 심하고 쉽게 흥분합니다. 잦벨어리 그간 때 마르는거림 시장 구경도 못 했습니다. 계속 같이 살아야 할지, 그만 사는 게 나을지 궁금합니다.

A 예로부터 결혼이란 3주 동안 서로 연구해보고, 3개월간 사랑하고, 30년 동안 싸우고, 30년을 서로 참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호랑이는 죽어도 사주를 벗어날 수 없다 했고 자기의 사주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방버둥치더라도 정해진 굴레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운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비록 감정의 기복이 심하더라도 옷벌어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으므로 다른 짝을 찾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천간에서 아내가 귀하를 생해주고 있으며 지지(地支)에서도 생해주고 있는데 기본 부부궁에 형살이 작용해 그리 흘러가니 그것 역시 상내생이라 여기고 귀하가 수용하는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들이 과거 나처럼 가산 탕진 밑빠진 독 물붓기 이제 줄여야

미남2 남자 41년 11월 1일 음력 밤 12시

Q 유복하게 지내다 결혼 후 서서히 가산을 탕진했습니다. 7년 만에 이혼한 뒤 재혼해 아들을 낳았고 무역업으로 재기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저처럼 가산을 탕진합니다. 사업 자금을 계속 대줘야 하나요?

A 의리지상(義理之象)이라 강자에게는 강하고 약자에게는 약한 유형이며 생일지에 삼관(劫財)을 놓아 하극상이 늘 염려되기에 자식에 대한 끊임없는 재지가 따르는 명입니다. 금한수냉(金寒水冷)은 외화내빈이라 화려해 보이지만 속은 늘 고독한 기운이 감돌고, 유시무종이라 시작은 있으나 결과가 없으며 추진 때는 한없이 좋하지만 주변으로 인해 결국은 낸탕터리가 됨을 암시합니다. 올해는 괜찮지만 2015년부터 점에 걸려 보증을 서다 큰 손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자식의 재물운로가 하향길로 가고 있으므로 귀하나 자제분의 장래를 생각해 미리 대비한다는 마음으로 알 빠진 독에 물 붓기는 줄여야 할 더 살아나게 됩니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안에 '사주 속으로' 란 클릭해 생년월일과 계이난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1월 13일 (음 12월 13일) 김학수 인생상담 [illegible]

쥐 — 48년생 축시니 축하의 일 할 일 생긴다. 60년생 뜻을 이루려면 배포를 키워라. 72년생 하늘어도 참으면 달콤한 열매 얻는다. 84년생 만인의 농담에 뼈가 있나니.

소 — 49년생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고운 법이다. 61년생 발 빠른 정보가 이익도 키운다. 73년생 구설수 있으니 입 조심. 85년생 반복되는 일에 변화가 생긴다.

범 — 50년생 지역인지는 새로운 동반자 나타난다. 62년생 작은 일은 배우자와 머리 맞대라. 74년생 가뭄에 단비가 내린 격이다. 86년생 기다리던 소식은 지연된다.

토끼 — 51년생 섣부른 결단은 위험천만. 63년생 어려운 속에서 희망도 발견한다. 75년생 직장인은 도약 기회 잡을 때 존재감 보여라. 87년생 계인한 일은 조용이 좋다.

용 — 52년생 남의 말을 우선하니 박수 쏟아진다. 64년생 투자는 관망만 하라. 76년생 포기 나지 않아도 할 일은 해야 이룬다. 88년생 선시의 말에 또 달면 후회 막심.

뱀 — 53년생 준비 부족한 계획은 보류하라. 65년생 고민은 깔끔하게 정리된다. 77년생 쉽지 않은 일이 선사에 애러듣 결. 89년생 진정하면 그대에게 복이 찾아온다.

말 — 42년생 자손들이 웃음꽃 선사한다. 54년생 부정한 돈은 돌 보듯 하라. 66년생 내가 가질 수 있어도 남을 먼저 생각하라. 78년생 욕심 앞에서니 마음이 편하다.

양 — 43년생 마음먹은 일은 미루는 게 좋다. 55년생 무거운 짐 벗으니 홀가분하니. 67년생 해묵은 숙원 이뤄져 콧노래 절로 나온다. 79년생 상사가 걱정 덜어준다.

원숭이 — 44년생 자녀가 만운에 부응한다. 56년생 나에게 도움되니 친구의 고한 적극 들어줘라. 68년생 가뭄에 단비가 내린 격. 80년생 기회 올 때 대비해 실력 쌓아라.

닭 — 45년생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마라. 57년생 기다리던 일은 지연된다. 69년생 일하는 재미에 빠지니 능률도 오른다. 81년생 업무를 무시하 완수해 자부심 커진다.

개 — 46년생 예상 못 한 이득 생긴다. 58년생 남의 떡이 커 보이는 법이다. 70년생 뒤심하던 호미로 막을 일 가래로 막는다. 82년생 공적인 자리에서 튀는 행동 조심.

돼지 — 47년생 걱정부터 앞서는 일은 접어라. 59년생 양엄히 간직하고 싶은 검사 찾아온다. 71년생 일을 앞세우면 신뢰만 우락. 83년생 기다림의 결과가 달콤하구나.

1골 넣고 1골 돕고 기찬 'Ki'

기성용 풀럼전 리그 2호골 시즌 1호 도움···김보경·이청용 풀타임 활약

잉글랜드 프로축구 선덜랜드 AFC의 기성용(25)이 리그 2호 골을 터뜨리며 폭발적인 상승세를 이어갔다

기성용은 12일 영국 런던 크레이븐 코티지에서 열린 2013~2014 프리미어리그 21라운드 풀럼 FC와의 원정경기에서 1-0으로 앞선 전반 41분 추가골을 넣었다. 세트 피스 상황에서 애덤 존슨이 골 지역 오른쪽에서 짧게 내준 볼을 강한 오른발 슈팅으로 네트에 꽂았다

지난달 18일 캐피털원컵 8강전에서 강호 첼시 FC를 상대로 극적인 연장 결승골로 잉글랜드 무대 첫 골을 신고한 기성용은 9일 뒤인 27일 에버턴 FC와의 프리미어리그 18라운드에서 리그 데뷔골도 성공시켰다

잉글랜드 무대에 진출한 뒤 1년 4개월간 골 갈증을 느꼈던 기성용은 이날 골까지 20여 일 동안 3골을 몰아 넣으며 EPL리그에서 확실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기성용은 후반 24분 역습 상황에서 골 지역 오른쪽에 있던 애덤 존슨에게 정확한 스루패스를 찔러줬고 존슨이 오른발로 마무리하면서 팀에 세 번째 골을 안겼다. 기성용이 기록한 시즌 1호 도움이다

4-1로 대승을 거둔 선덜랜드는 이번 시즌 정규리그 최다 득점이자 최다 점수 차 승리를 거뒀다. 순위도 최하위에서 19위로 한 계단 올라섰다

한편 카디프시티 FC에서 뛰는 김보경(25)은 웨스트햄 유나이티드 FC전에서 풀타임 활약했다. 그러나 팀의 0-2 패배를 막지 못했다

선덜랜드 AFC의 기성용이 12일 풀럼 FC와의 2013~2014 프리미어리그 21라운드 경기에서 리그 2호 골을 터뜨린 뒤 손을 들어 기뻐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잉글랜드 챔피언십 볼턴 원더러스 FC의 이청용(26)은 노팅엄 포레스트 FC전에 선발 출전해 90분간 뛰었다. 후반 2분 제어미 페터슨에게 선제골을 내준 볼턴은 후반 30분 매튜 밀스가 만 골을 만회하며 노팅엄 포레스트와 1-1로 비겼다

임대를 끝내고 퀸스파크 레인저스 FC로 복귀한 윤석영(24)은 입스위치 타운 FC전 출전 명단에서 빠졌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봅슬레이 4인승도 첫 金

소치행 티켓 사실상 확정

12일 열린 아메리카컵 7차 대회에 출전한 한국 봅슬레이 남자 4인승의 원윤종 석영진 전정린 서영우(왼쪽부터)

/대한봅슬레이스켈레톤연맹 제공

한국 봅슬레이가 남자 4인승에서도 사상 첫 국제대회 금메달을 획득했다

파일럿 원윤종과 푸시맨 석영진-전정린, 브레이크맨 서영우로 구성된 남자 4인승 대표 A팀은 12일 미국 레이크플래시드에서 열린 아메리카컵 7차 대회에서 1, 2차 레이스 합계 1분 53초52의 기록으로 우승했다

한국 봅슬레이가 4인승에서 국제대회 정상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3월 원윤종이 조종간을 잡고 아메리카컵에서 사상 첫 우승한 이후 한국은 1년간 아메리카컵에서 2인승에서만 6개의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한국 봅슬레이팀은 이번 경기 결과로 4인승에서도 소치행 티켓을 사실상 손에 쥐었다. 국제봅슬레이스켈레톤연맹(FIBT)은 이달 20일 국가별 올림픽 출전권을 공식 발표한다. 봅슬레이에서는 남자 4인승과 2인승, 여자 2인승 등 모든 종목에서 자력으로 올림픽 티켓을 얻게 됐다

한편 남자 스켈레톤의 윤성빈은 같은 날 미국 파크시티에서 열린 대륙간컵 7차에서 1분 38초72의 기록으로 은메달을 차지했다. 6차 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데 이어 2연속 메달을 목에 걸었다 /유순호기자

'약물 복용' A-로드 162경기 못 뛴다

미국프로야구(MLB) 최고액 연봉자인 알렉스 로드리게스(39·뉴욕 양키스·사진)가 금지약물 복용 혐의로 결국 2014시즌을 통째로 쉴 위기에 처했다

MLB 사무국과 로드리게스를 중재해온 프레드릭 호로위츠 위원은 12일 로드리게스에게 162경기 출전정지 징계를 결정했다. 따라서 정규리그에 한 경기도 뛸 수 없고 양키스가 포스트시즌에 진출해도 출전할 수 없다. 로드리게스의 나이를 감안할 때 1년 출전금지는 사실상의 은퇴 통보나 마찬가지다

로드리게스는 곧바로 연방법원에 제소하겠다며 반발했다. 지난해 8월 211경기 출전정지 처분을 받았을 당시 곧바로 항소해 진어 시즌 경기에 출전한 바 있다

중재위에 따르면 로드리게스는 노화 방지 클리닉인 바이오 제네시스에서 금지약물의 일종인 경기력 향상 물질을 불법으로 오랜 기간 구매했다. 또 이를 다른 선수들에게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재위는 로드리게스가 2001~2003년에 이어 두 번째로 금지약물에 연루된 점을 감안해 사상 최대의 징계를 결정했다

그동안 연방 법원이 MLB 중재위의 결정을 거의 뒤집지 않았던 관례를 볼 때 로드리게스가 구제될 가능성은 낮다는 게 현지 언론의 전망이다

로드리게스는 2017년까지 양키스로부터 2억7500만 달러의 연봉을 받는다. 양키스는 로드리게스의 징계가 확정되면 올해 연봉 2500만 달러(약 265억원)를 아껴 일본인 투수 다나카 마사히로를 영입하는 데 한층 여유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유순호기자

이광종호 요르단과 무승부···수비 보완 시급

이광종 감독이 이끄는 22세 이하(U-22) 축구대표팀이 인천 아시안게임의 전초전인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십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무승부를 거뒀다

대표팀은 11일 오만 무스카트의 로열 오만 폴리스 경기장에서 열린 요르단과의 조별리그 1차전에서 임창우(울산 현대)의 자책골과 만회골이 이어지며 힘겹게 승점 1을 기록했다. 임창우는 전반 31분 아흐마드 살레흐의 골을 몸을 날려 막아내려다 우리 골 안으로 넣고 말았다. 그러나 임창우는 12분 뒤 코너킥을 헤딩으로 연결시키며 아쉬움을 털어냈다

한국은 예선에서 4전 전승, 13골을 넣은 복병 요르단을 맞아 시종 어렵게 경기를 풀어갔고 요르단의 한 박자 빠른 공격에 순간적으로 수비가 뚫리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한국은 13일 오후 10시 같은 곳에서 미얀마와 조별리그 2차전을 치른다. AFC U-22 챔피언십은 올해 처음 열리는 대회로 16개국이 4개 조로 조별리그를 치르고 8강부터 토너먼트로 우승팀을 가린다 /유순호기자

조성민 자유투 신기록···한 경기 18점

부산 KT의 조성민이 프로농구 한 경기 국내선수 자유투 최다 득점 기록을 세웠다

조성민은 12일 부산 사직체육관에서 열린 2013~2014 국민카드 프로농구 정규리그에서 자유투 18점을 포함해 26점을 넣었다. 조성민의 활약을 앞세운 KT는 원주 동부를 81-67로 꺾고 동부 전 6연승을 달렸다

인천 전자랜드는 서울 삼성을 75-70으로 꺾고 4연승을 달렸다. 이날 경기에는 인천 역대 최다인 9011명의 관중이 몰렸다 /유순호기자

프로농구 전적 12일

팀	1Q	2Q	3Q	4Q	합계
KT	23	17	22	19	81
동부	11	23	16	17	67
전자랜드	10	30	21	14	75
삼성	18	14	12	26	70
KGC	21	23	22	17	83
SK	13	20	18	22	73
삼성생명	18	11	12	12	53
우리은행	21	10	11	26	78

프로배구 전적 12일

한국전력	2	3	현대캐피탈
현대건설	0	3	기업은행

다시 뭉친 월드컵 4강 신화 주역들

거스 히딩크 전 국가대표팀 감독과 2002 한·일월드컵 4강 신화의 주역들이 12일 한남동 하얏트호텔에서 만났다. 최근 무릎 수술을 받아 휠체어를 타고 등장한 히딩크 감독은 올해 브라질 월드컵에 대표팀을 이끌고 출전하는 홍명보 감독에 대해 "충분히 경험이 있고 국제 무대에서 통할 수 있을 정도로 영리하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날 열린 오찬 행사에는 김태영·이운재·윤정환·송종국·최진철·유상철·이영표 등 2002년 주전 선수들과 정몽준 대한축구협회 명예회장이 참석했다. 홍 감독은 참석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www.1588-2089.com

차별없는 조직문화 만들기 프로그램 안내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있는 민간기업체 및
공공기관 임직원을 위한 **차별없는 조직문화 만들기 프로그램!**

사업장 방문교육

사업장에 직접 방문하여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차별없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한 교육을 해드립니다.

- 교육비용, 강사비용 전액 무료!
- 일정 : 2014.1.20.(월)~ 연중
- 필수 : 차별없는 조직문화 만들기
- 선택 : 성희롱 예방교육 or 최신 노동법 이슈

자율진단 및 개선지원

사업장에서 스스로 고용차별 여부를 진단하여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 · 컨설팅 해드립니다.

신청 및 문의

- 신청 : www.1588-2089.com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
- 문의 : 전국어디서나 ☎1588-2089!

비정규직 차별!
차별없는일터지원단과 상의하십시오!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588-2089**

차별없는일터지원단은?